그림책

여우가 빚어준 눈덩이

글　문영철

그림　정남혁, 리송철, 박금성, 박길성, 천은석, 정광일, 권영훈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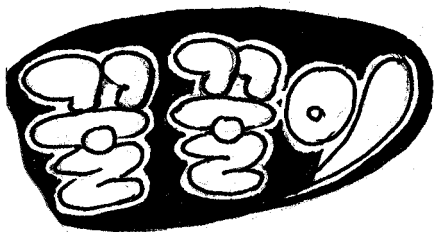



그림 정남혁

샘골동산의 착한 짐승들이 자기들이 사는 마을을 제손으로 멋지게 꾸리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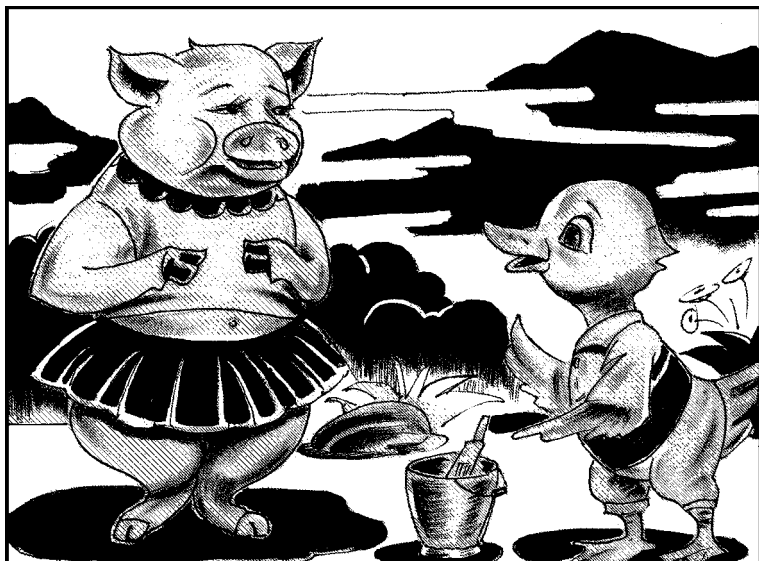
《난 앞벌의 뙈기논들을 번듯한 규격포전으로 만들겠네.》

황소가 선참 나서자 밤빛말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난 마을에 새 기와집들을 짓고 멋진 유희장도 만들겠네. 그렇지, 길도 훤하게 닦아놓고. …》

《우린 뭘한다?…》

염소와 양은 서로 의논끝에 마을과 산에 나무를 심기로 했고 멍멍이와 야웅이는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놓기로 했습니다.

어느날 흰오리가 꿀꿀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꿀꿀이아주머니, 우리도 동산을 위해 무엇이든 해놓아야지요.》

《우리같은 무재간둥이들이 하긴 뭘 한다구 그래요. 그저 남들이 하는걸 보다가 박수나 열성적으로 쳐주는게 상책이지.》

꿀꿀이가 퉁명스레 대꾸하자 흰오리는 혼자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그래두 하자구 마음만 먹으면…》

흰오리가 돌아가자 꿀꿀이는 새끼낳을 곳만 만들며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숭어가 쩜벙하면 망둥어도 쩜벙한다더니 뒤뚝거리며 걷는 주제에 무슨 일을 한다구… 그저 나처럼 제 살 궁냥이나 하는게 땅수지.》

꿀꿀이가 제 집안에서만 돌아치는 사이에 부지런한 동산짐승들은 앞벌을 번듯이 펼쳤고 마을과 유희장, 꽃밭을 훌륭하게 꾸려놓았습니다.

흰오리도 물놀이장을 멋있게 만들어놓았습니다.

《하, 거 흰오리가 보기와는 다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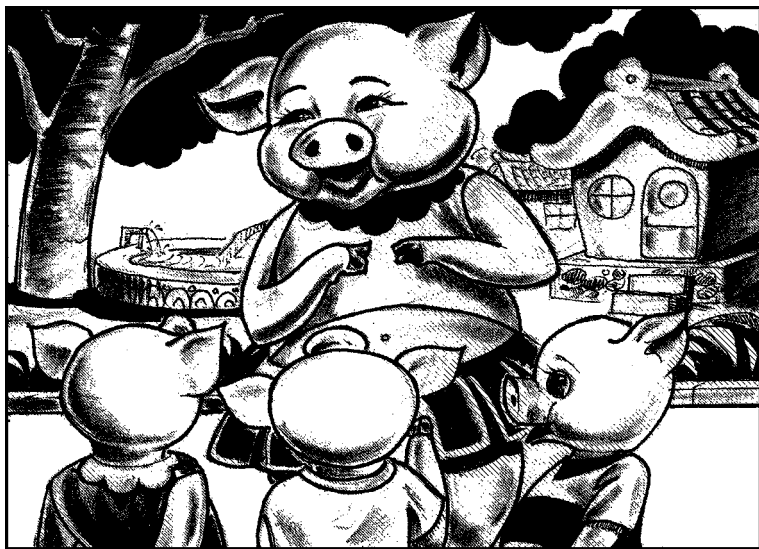
꿀꿀이는 마을모임에서 박수를 치며 입만 쩝쩝 다셨습니다.

얼마후 꿀꿀이는 많은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새끼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더니 온 마을을 나돌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집으로 돌아온 새끼꿀꿀이들이 어미꿀꿀이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온 동네가 칭찬하던데 정말 저 앞벌을 송아지네 아빠엄마가 번듯하게 정리했구 마을의 기와집들과 유희장은 망아지네 아빠엄마가 꾸렸나요?》

《음, 그렇단다.》
엄마의 대답에 다른 새끼꿀꿀이가 또 물었습니다.
《저 마을과 산들엔 맴매네 아빠엄마들이 나무를 많이 심었대요. 그것도 맞나요?》
《그것도 맞다.》
어미꿀꿀이는 생각없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한건 뭐나요?》
막내새끼꿀꿀이의 생각지 않던 물음에 어미꿀꿀이는 그만 말문이 막혀 떠듬거렸습니다.
《엉? 난… 그저 박수만 쳤지, 헤헤. … 박수를 쳐주는이도 있어야지.》
어미꿀꿀이는 새끼들 보기가 면구스러워 이렇게 어물쩍 대답했습니다.
이때 꿀꿀이네 집에 흰오리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있었군요. 두루미기자선생이 아름다운 우리 동산을 사진찍어 신문에 소개하겠다구 다들 모이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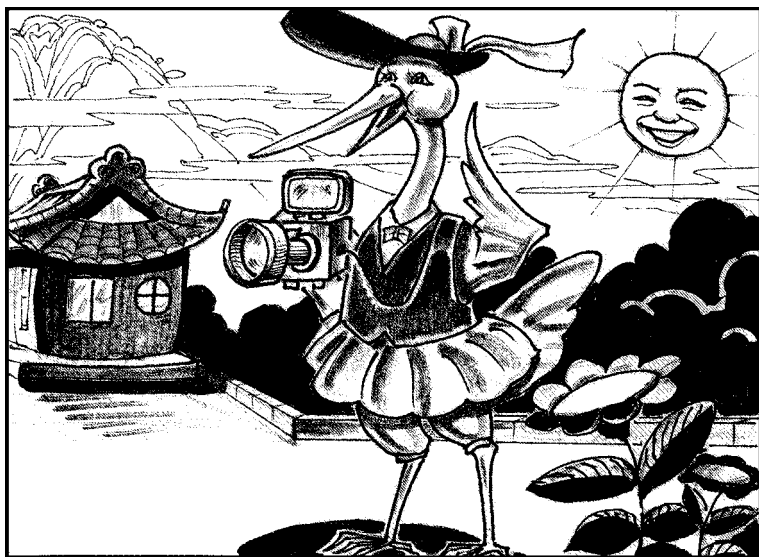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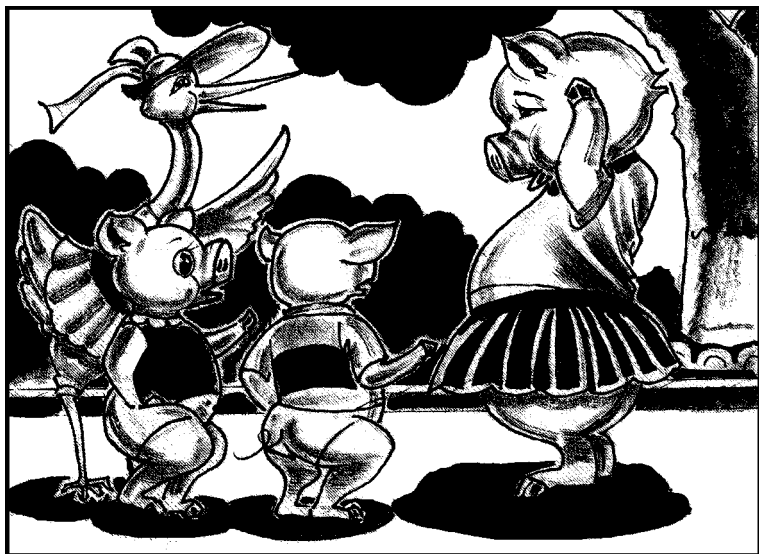
《야! 좋다.》

새끼꿀꿀이들은 저들 먼저 좋아라 떠들며 무작정 어미꿀꿀이를 잡아끌고 모임장소로 갔습니다.

동산짐승들은 훌륭하게 꾸린 동산을 배경으로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젠 자기가 꾸린 곳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게 어떻습니까?》

두루미기자의 말에 모두가 찬성하였습니다.

동산짐승들은 자기들이 땀흘려 꾸린 새집이며 꽃밭, 물놀이장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젠 꿀꿀이아주머니네 차례입니다. 꿀꿀이아주머니넨 어딜 배경으로 사진을 찍겠습니까?》

사진기를 든 두루미기자의 물음에 어미꿀꿀이는 낯이 시뻘개서 어쩔줄을 몰라하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기의 땀이 배인 곳은 한군데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는 어미꿀꿀이를 빤히 올려다보던 막내꿀꿀이가 어미꿀꿀이의 손을 내려다보며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린 엄마 손바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야겠구나. 엄마가 동산을 위해서 한 일이란 박수를 친것밖에 없다니까. …》

그림 정남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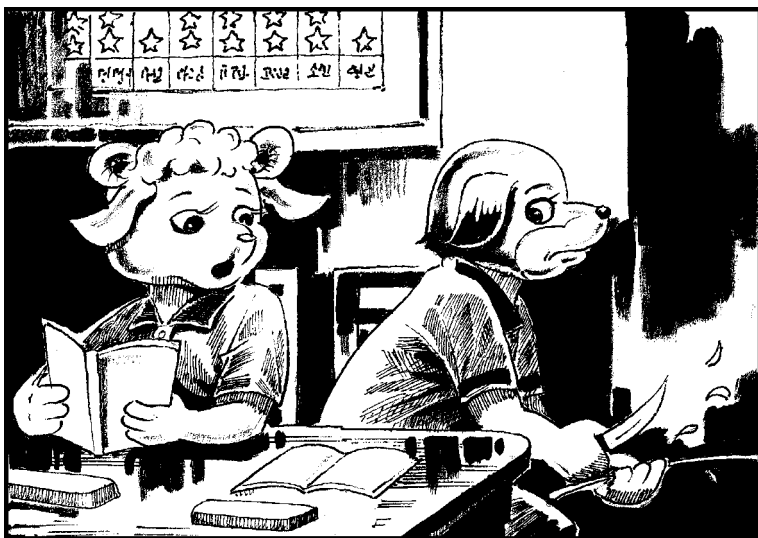
오늘도 착한 새끼짐승들은 공부를 재미나게 하고있었답니다.

그런데 맨 뒤줄에 앉은 멍멍이만은 공부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 부지런히 깎고있었습니다.

《얘, 멍멍아! 넌 뭘 그렇게 깎기만 하니?》

곁에 앉은 곱슬양이 나무라듯 물었습니다.

《응, 낚시대야! 앞개울에 고기떼가 욱실거린다더라.》

멍멍이는 곱슬양에게 자랑이나 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런걸 공부시간에 하면 되니? 공부는 하지 않고…》

곱슬양이 조용히 타이르자 멍멍이는 오히려 코웃음 쳤습니다.

어느덧 하루공부가 끝났습니다.

멍멍이는 낚시대를 둘러메고 곧장 개울가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어찌나 물고기들이 많은지 낚시를 던지는 족족 팔뚝같은 잉어며 숭어들이 물려나왔습니다.

《히야!》 멍멍이는 너무 좋아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이때 음매염소가 방울을 달랑거리며 찾아왔습니다.

《얘, 멍멍아! 황소아저씨가 그러는데 금년봄에 우리들이 모옮겨심기를 잘해 강냉이농사가 잘됐다면서 어서 한자루씩 가져다 맛보래.》

《뭐, 한자루씩?…》

음매염소의 말에 멍멍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안 줄테면 그만둘거지 한자루씩은 또 뭐야?…)

멍멍이는 황소아저씨가 체통에 비해 너무 쬐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황소아저씨네 집에 갔던 음매염소가 강냉이를 한짐 지고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멍멍이는 그만 눈이 휘둥그래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원, 저런… 연필 한자루와 강냉이 한자루가 다르다고 진작 대줄거지. 저렇게 한자루면야…)

멍멍이는 그제서야 제일 큰 자루를 골라가지고 황소아저씨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멍멍인 안 가져가는줄 알았더니…》

마지막강냉이마저 곱슬양의 자루에 넣어주던 황소아저씨는 헐떡거리며 달려온 멍멍이를 의아해 바라보았습니다.

《저… 난 한개보고 그러는줄 알고…》

멍멍이는 뒤더수기를 긁으며 말끝을 얼버무렸습니다.

《너두 참! 그거야 한이삭이지 한자루냐?》

곁에 섰던 곱슬양이 듣다못해 튕겨주었습니다.

《아니, 멍멍아! 그럼 넌 아직 한이삭도 모르고 한자루도 모르느냐?》

눈을 크게 뜬 황소아저씨의 물음에 말문이 막힌 멍멍이는 그만 빈 자루를 움켜쥔채 줄행랑을 놓고말았습니다.

누구나 멍멍이처럼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이런 봉변을 당할 때가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림 리송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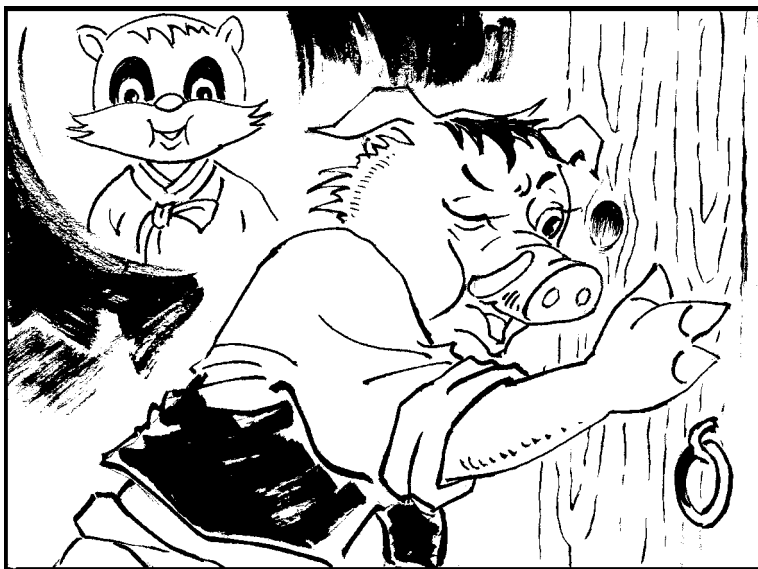
메도치라고 부르는 메돼지네 집 방안문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나있었습니다.

메도치는 누가 찾아오군 하면 우선 이 문구멍으로 내다보고야 문을 열군 하였습니다.

어느날 메도치네 집에 너구리가 찾아왔습니다.

《메도치아저씨 계세요?》

메도치는 문구멍으로 내다보다가 이마살을 찌프렸습니다.

(저런 빈털터리네와는 대상해야 리로울게 없어.)

메도치는 문을 열어줄 대신 방바닥에 누워 앓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구 골이야, 아이구 골이야.》

문을 열어본 너구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서 《주인 계시우?》하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이건 또 누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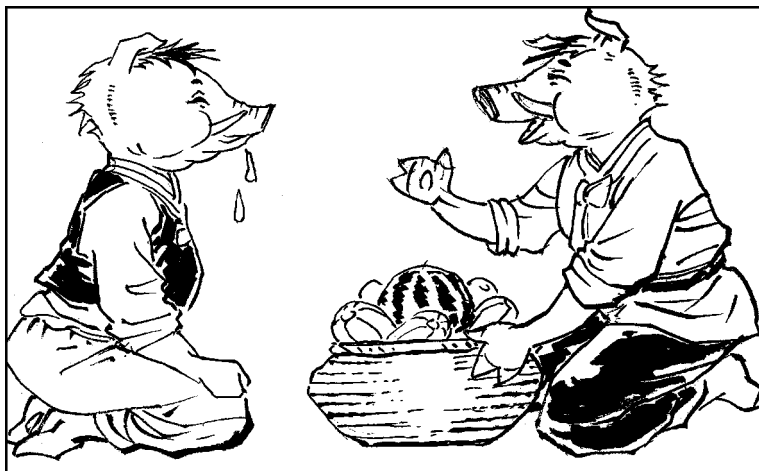
벌떡 일어나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이웃마을 큰 메돼지인 메꿀이였습니다. 메꿀이는 싸리광주리에 참외며 수박을 한가득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집엘 다 어떻게…》

메도치는 문을 열며 허둥지둥 마중나갔습니다.

광주리에 한가득 가지고온 메꿀이야말로 괜치않은 이웃이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이 집과 사돈을 맺으면 해서… 허허…》

방에 들어온 메꿀이는 점잖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 사돈을?!…》
이 말에 메도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런 집과 사돈을 맺으면야 단단히 덕을 볼수 있지.)
이때 《계세요?》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문가에 앉았던 메꿀이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메도치는 《아, 사돈님! 누가 왔나 문구멍으로 내다보고 열어야 합니다.》하더니 바삐 다가와 문구멍으로 내다보는것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새끼너구리가 또 찾아왔습니다.
《저런것들과는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신세를 지자고 드니까. 아예 못 들은척 하는게 낫지요.》
《예?!》
메꿀이는 처음에 무슨 소린가 해서 두눈만 껌벅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말뜻을 알아차리고 아무 소리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우?》

메도치는 마당까지 따라나가며 메꿀이를 붙잡았습니다.

《이걸 놓으시우. 내 이런 문구멍으로 이웃을 갈라대하는 집과는 사돈을 맺을 생각이 없수다. 내가 찾아올 때도 저 문구멍으로 저울질해봤겠지요?》

메꿀이는 끝내 메도치를 뿌리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이구, 저놈의 문구멍때문에 혼사가 다 틀어졌구나.》

이때 새끼너구리에게 먼저 약을 쥐여보내고 곰네 집에 들려 메도치에게 줄 꿀까지 얻어가지고 오던 너구리가 이 광경을 보고 쓴입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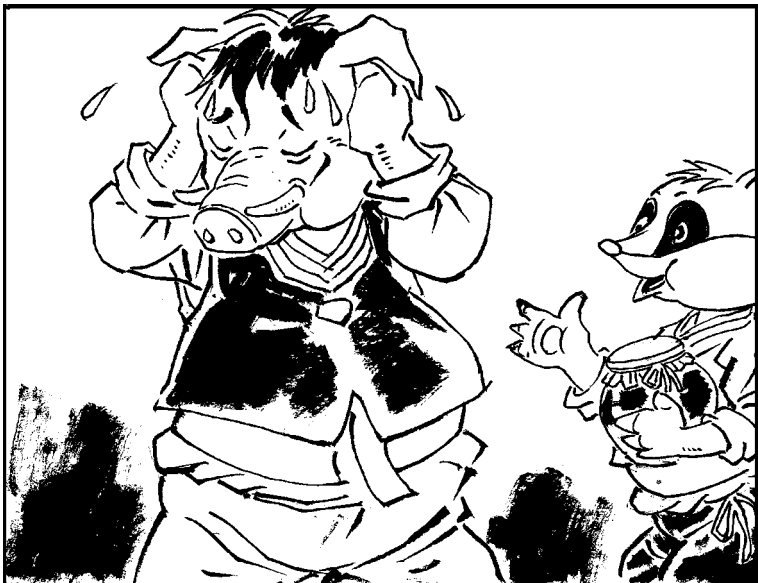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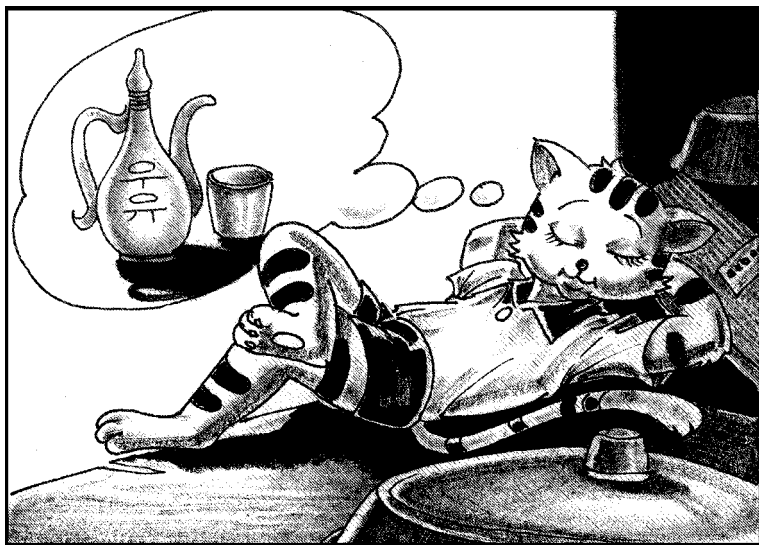
《그게 어디 문구멍탓이겠나요? 아저씨의 량심에 뚫린 구멍탓이지. 량심에 구멍이 뚫리면 오늘처럼 혼사만 틀어지는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웃들까지 다 잃게 됩니다.》

고양이가 먹은 쥐약

그림 리송철

착한 짐승들이 모여사는 어느 집에 알락이라 불리우는 고양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알락고양이는 점점 일하기가 싫어져서 요즘 와서는 쥐를 잡는것보다 따뜻한 부뚜막에 누워 찬장의 음식이나 뒤져먹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유를 단지채로 몽땅 마셔버린 알락고양이는 《저놈 잡아라! 저놈!》하고 소리치며 쥐구멍앞에 뻗쳐 섰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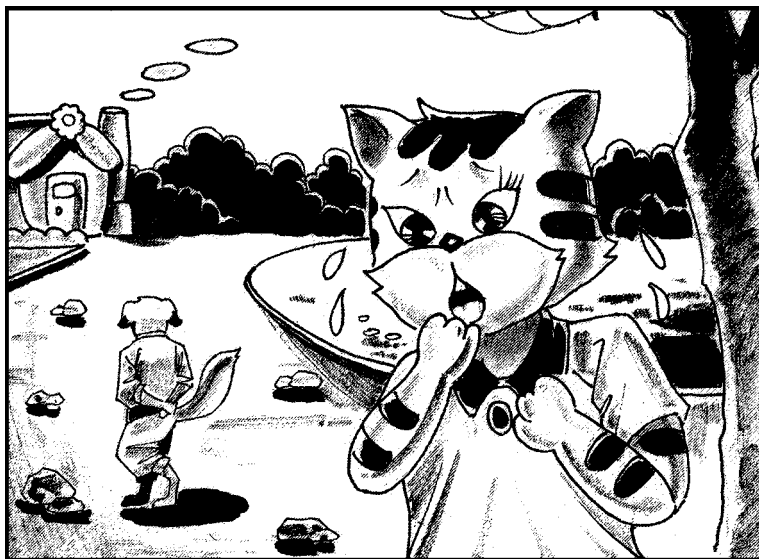
집을 지키던 멍멍이가 황급히 뛰여오자 알락고양이는 일부러 씨근덕거리며 쥐구멍을 가리켰습니다.

《고 못된 놈의 쥐새끼가 글쎄 우유까지 훔쳐먹었네.》

그러나 남달리 코가 밝은 멍멍이는 비릿한 우유냄새가 고양이의 입에서 나옴을 인차 알아챘습니다.

《거참 잘됐네. 이런 일이 있을줄 알고 우유단지에 쥐약을 쳤댔으니까. …》

《뭐? 쥐약?》

멍멍이가 시치미를 뻑 따고 나가자 눈알이 희뜩 뒤집혀진 알락고양이는 속이 메슥메슥해오고 밸이 뒤틀려오는듯 했습니다.

(아이쿠! 이젠 죽었구나.)

가슴을 쥐여뜯던 알락고양이는 불시에 그럴듯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옳지, 이런 일이야 쥐들이 겪었을테니 쥐들한테 물어보면…)

알락고양이는 죽고사는 판이라 앞뒤를 가릴새없이 쥐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얘 쥐들아, 다시는 너희들을 잡아먹지 않을테니 한가지만 좀 대주렴. 쥐약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저들앞에서는 언제나 호랑이같이 으르던 알락고양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하자 쥐들은 제법 거드름까지 피웠습니다.

《거야 간단하지. 쥐약이라는건 발톱만 뽑으면 거기로 쑥 빠져나온다네.》

《뭐?! 발톱? 야, 그럼 나와서 내 발톱을 좀 뽑아주렴.》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쥐들은 때를 만난듯 굴에서 밀려나왔습니다.

《멍! 멍!》

이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멍멍이가 달려나와 쥐들을 몽땅 요정냈습니다.

《쥐약은 무슨 쥐약이겠니?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서 안됐지만 그렇게 남을 속이며 제 본분을 잃고 살다간 자기도 속아 나중에는 목숨까지 위험하게 된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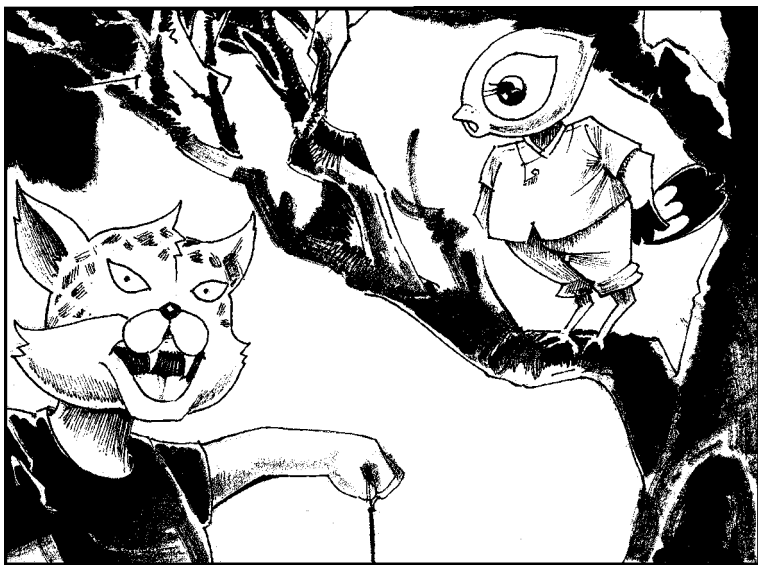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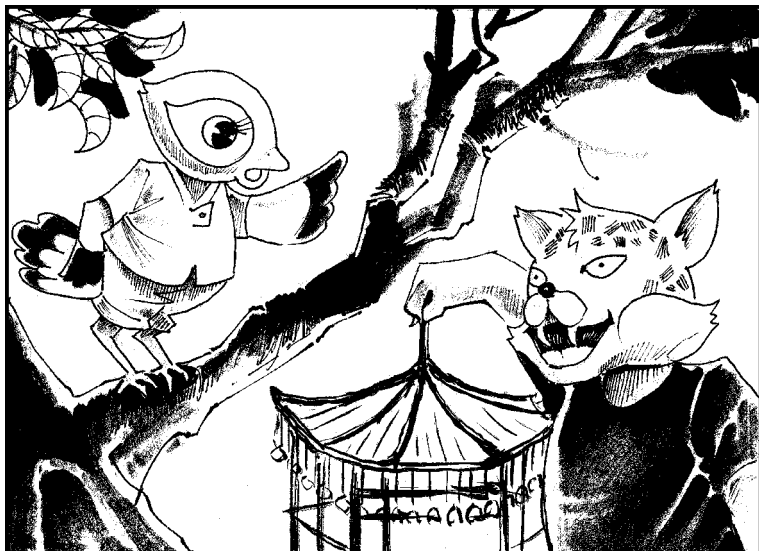
고개를 숙이고있는 알락고양이를 보고 멍멍이는 이렇게 진심으로 타일렀습니다.

그림 리송철

새들이 알낳이둥지를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던 때였습니다.

찌꼴새도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삼껍질이며 풀잎들을 물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느날 삵이 찌꼴새를 시까슬렀습니다.

《원참, 금방울, 은방울소리가 울려나오는 부리로 삼껍질을 물고다니다니… 기가 막히군, 쯧쯔.》

삵은 혀까지 차며 꾀꼴새를 올려다보더니 등에 지고온 자루에서 무엇인가 번쩍거리는것을 내놓았습니다.

《옛다. 너한테 주려고 마침 금조롱 하나 구해왔다. 금빛옷을 입은 명가수의 집이야 이쯤 돼야지.》

나무가지에 앉아 잠시 날개쉼을 하던 꾀꼴새는 삵이 내놓은 금조롱을 보자 저도 모르게 《야!》하고 감탄했습니다.

노란 금살창으로 촘촘히 빙 둘러막고 뾰족한 고깔지붕에는 깨알종들이 수없이 매달려있는데 폭신한 돌이끼를 깐 바닥은 살뜰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자, 어서 어려워말고 들어가봐라. 마음에 들겠는지.》

삵은 제법 문까지 열어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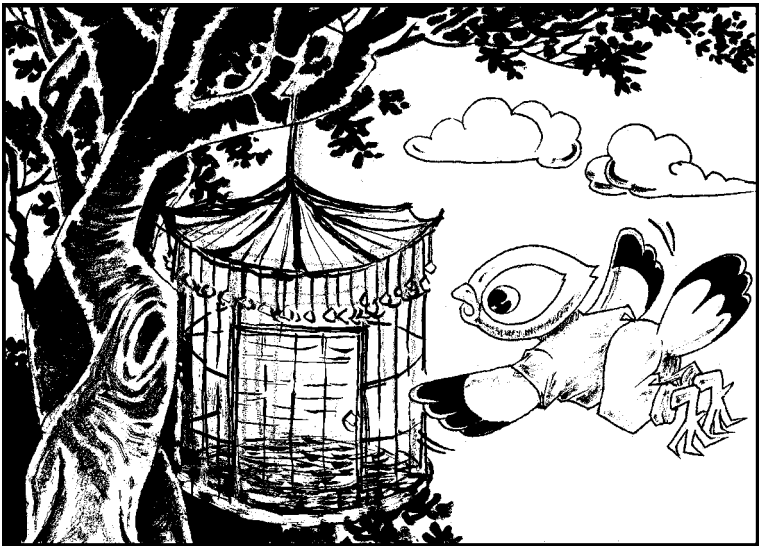
그러나 꾀꼴새는 삵이 어떤 놈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흥, 들어가면 붙잡으려구? 엉큼한 놈!》

꾀꼴새는 도리질을 했습니다.

《난 싫어.》

꾀꼴새의 거절에 삵은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아니, 이 금조롱이 싫다니? 난 그래두 널 크게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삵은 짐짓 섭섭한 표정을 짓더니 문득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할수 없지, 나를 믿지 않으니… 넌 혹시 조롱에 들어가면 내가 붙들가봐 겁먹은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이 금조롱을 나무가지에 걸어주고 갈테니 어쨌든 내 성의나 잊지 말아라. 이 집을 쓰고 살다가 좋으면 삵이 만든 금조롱이 좋다고 널리 소개나 해주렴.》
이렇게 말한 삵은 정말 긴 나무장대기로 금조롱을 나무가지에 걸어주더니 자리를 성큼 뜨는것이였습니다.
(호참, 별난 삵도 다 있구나.)
삵이 사라지자 꾀꼴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무가지에 걸린 금조롱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꾀꼴새가 금조롱안에 들어서자마자 열려졌던 살창문이 저절로 찰칵 닫기며 깨알종들이 짤랑짤랑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깜짝 놀란 찌꼴새는 얼른 돌아서서 문을 열려 했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찌꼴새는 금조롱이 삵이 새들을 홀쳐잡는 덫조롱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늦은 깨달음이였습니다.

짤랑짤랑 깨알종소리에 숨어있던 삵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흐흐흐! 네놈이 정말 내 〈성의〉를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고마워.》

징글스러운 삵놈의 낯짝을 쏘아보며 찌꼴새는 원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내가 삵놈을 경계한다고 하면서도 저놈의 물건에는 왜 환상을 가졌댔을가?》

찌꼴새의 이 웨침은 그후 새동산의 귀중한 교훈으로 되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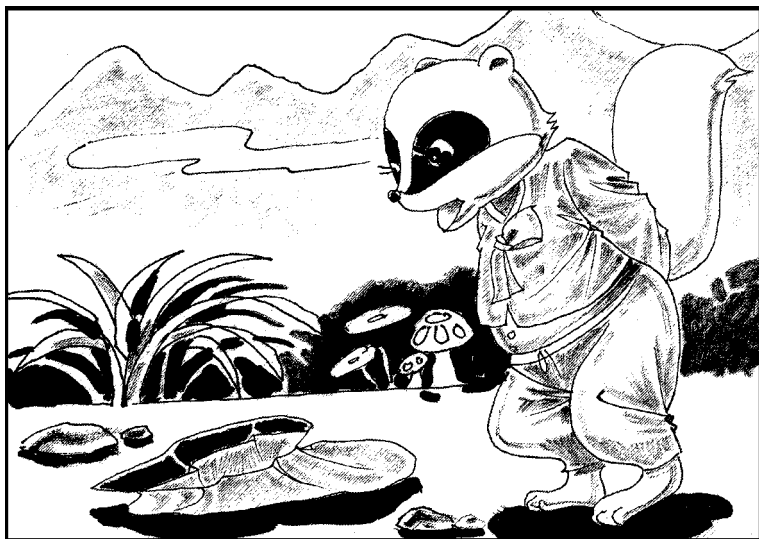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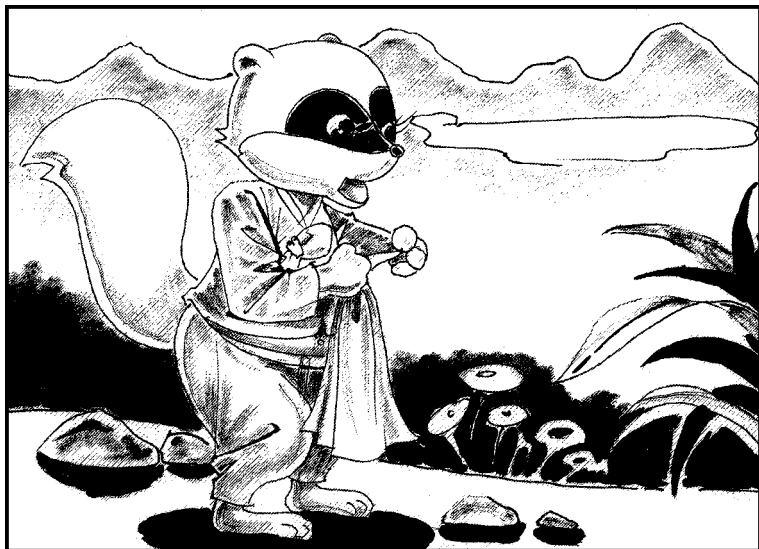
그림 리송철

산열매들이 무르익는 가을이 왔습니다.

착한 짐승들이 모여사는 동산에서는 모두 겨울나이량식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빛너구리만은 건달을 부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개울로 가재잡이를 가던 너구리는 풀속에서 웬 자루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구리는 혹시 자루속에 무엇이 들어있지나 않을가 하여 두눈을 부릅뜨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자루안에는 다른것은 없고 웬 종이쪽지가 착착 접혀져있었습니다. 종이쪽지를 펴보니 이런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반달곰아저씨앞. 우리 막내에게 도토리자루를 보냅니다. 엄마청서로부터.》

(흥, 이따위 종이대신에 도토리 한알이라도 들어있을것이지.)

자루를 내버리려던 순간 너구리의 머리속에는 웅큼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도토리자루라… 엄마청서가 반달곰한테 도토리를 얻어오라고 자루를 보냈던게구나. 그러니 반달곰에게서 도토리를 가져다 청서네 집에 조금 주는척 하고 내가 몽땅…)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너구리는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허리 아프게 도토리를 줏느니 차라리 한번 이렇게 슬쩍 하는게 낫지.)

너구리는 반달곰네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분이 좋아 흥얼흥얼 코노래까지 부르며 가던 너구리는 무춤 걸음을 멈추고 또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지! 이왕이면 자루를 하나 더 가지고 가야지.)

선자리에서 시꺼먼 우묵눈을 굴리던 너구리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후렁후렁한 속바지를 벗었습니다.

(그까짓, 도토리만 공짜로 생긴다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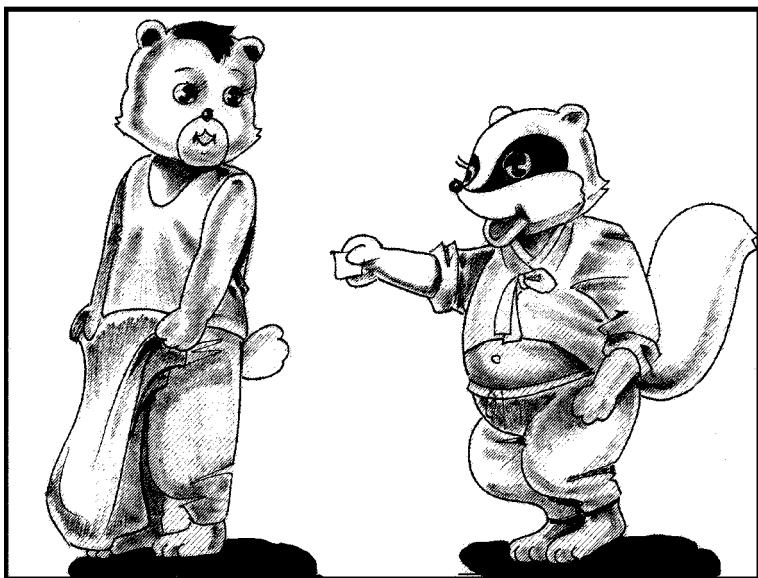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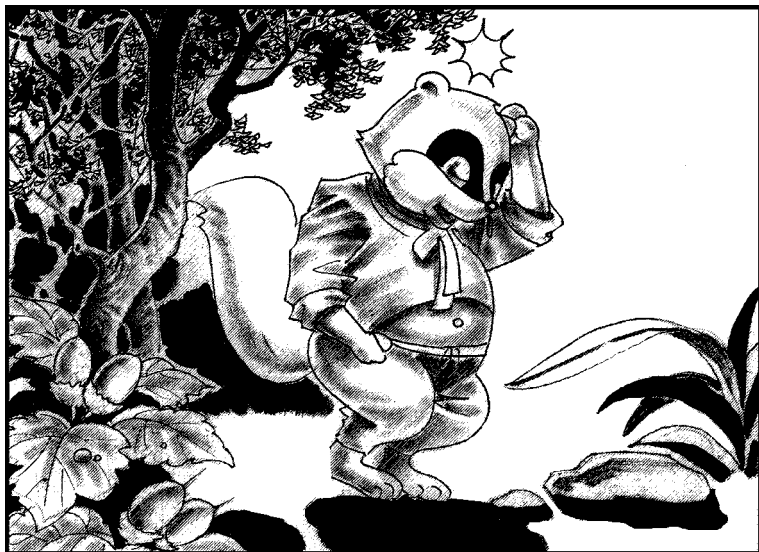
너구리는 속바지를 동여매여 그럴듯한 자루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반달곰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오냐, 어떻게 왔니?》

반달곰은 뜻밖에 나타난 너구리를 의아해 바라보았습니다.

너구리는 자루와 쪽지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반달곰은 너구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막내청서는 어딜 가고 네가 왔니?》

《나하고 같이 오다가 배가 아파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 혼자 왔어요.》

《저런… 참, 고맙기도 하구나. 전번에 지나가는 말로 도토리자루가 모자란다고 했더니 이렇게 둘씩이나 보냈구나. 너도 수고했다.》

《예?》

반달곰의 말에 너구리는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왜 그러나?》

반달곰은 깜짝 놀라는 너구리를 의아해 바라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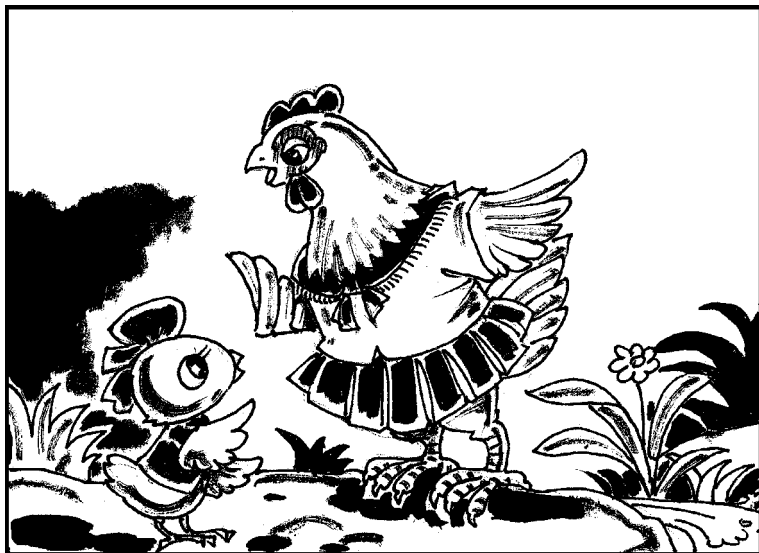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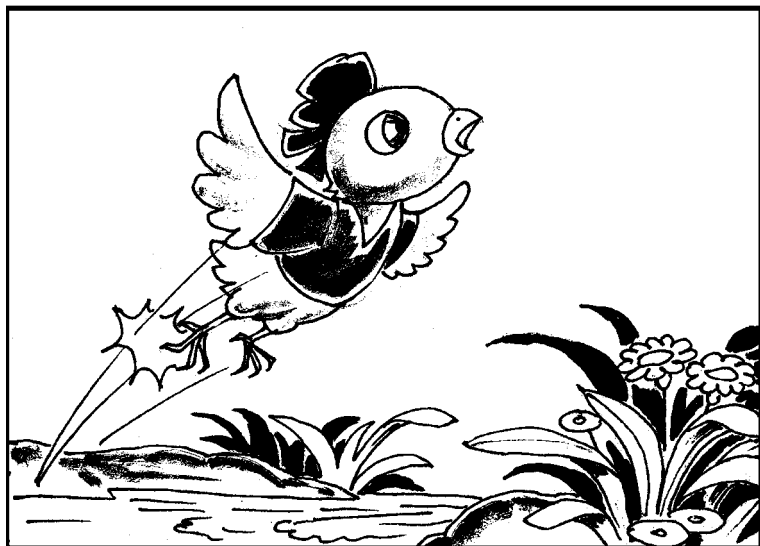
《아… 아무것도 아니예요. 난 수고한게 없어요.》

바빠맞은 너구리는 당장에 제 검은 속이 드러날가봐 반달곰네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마빡을 쥐여박았습니다.

《아이쿠! 공짜를 바라다가 결국 내 속바지만 떼웠구나.》

그림 박금성

풋병아리 열마리 엄마따라 삐용삐용
길을 지나 들을 지나 개울가에 이르렀네
《얘들아, 누가 이 개울을 날아넘겠니?》
그동안 나는연습 배워준 엄마닭
시험이나 치르듯 물으니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했네

이때 금병아리로 불리우는 노란 병아리
뙤똑뙤똑 나서며 삐용삐용 말했네
《엄마, 내가 날아넘을래》

《그래?!》
엄마닭도 기특해 고개를 끄덕이니
작은 날개 포드득 있는 힘껏 나래쳐
금병아리 단숨에 개울을 넘었네

야!— 야!—
아홉형제 모두모두 감탄하고
개울물도 조잘조잘 금병아리 칭찬하는데
으쓱해진 금병아리 장한듯이 말했네
《이젠 족제비놈도 무섭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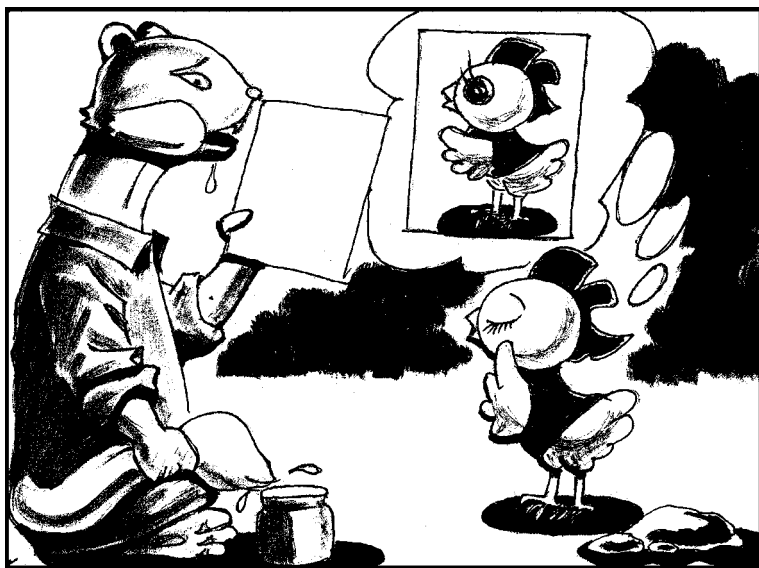
그러자 엄마닭 큰일난듯 말했네
《아니다, 그렇다고 한시도 마음늦추어
  족제비놈을 대해서는 안된다》
엄마닭 타이름에 다시금 포드득
개울을 넘어온 금병아리 하는 말
《이래도 엄마는 걱정을 못 놓겠어요?》

그러던 어느날
아홉형제 엄마따라 날기연습 가고
금병아리 혼자서 집을 지키고있는데
난데없이 나타난 족제비 한마리
옆에다 끼고온 화판 펼쳐놓았네
《얘야, 무서워말아
난 너희들을 잡아먹는 나쁜 족제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러 다니는
화가족제비란다
족제비라고 어디 다 같겠니?》

《그래요?!…》
족제비의 말에 금병아리
꼭 닫았던 문 반쯤 열고 물었네
《그런데 그림은 무엇으로 그리나요?》

그러자 족제비 얼른 제 꼬리 내보이며
자랑하듯 말했네
《이 세상에 별의별 붓이 다 있다 해도
  우리 족제비꼬리털만 한것이 없단다
  그래 우리는 이 꼬리로 그림을 그리지》

그리고는 족제비 군침 꼴깍 삼키며 말했네
《어서 이리 나오렴
  내 너를 멋들어지게 그려주지
  넌 정말 귀엽게 생겨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아마 내 그림재간에 귀여운 너를 그리게 됐으니
  이 그림은 틀림없이 걸작품이 될거다》

족제비의 달콤한 말에 귀맛이 당긴 금병아리
문밖까지 나와서 말했네
《그럼 어디 한번 그려보지요?》
족제비 연방 꼬리를 물감통에 담그는데

금병아리 오래동안 한자리에 서있자니
갑갑해 저도 모르게 눈까풀이 감겼다네

순간 휙—소리 바람이런듯 들리더니
화가족제비 그만 백정족제비로 변했네
걸작품의 원형으로 단꿈꾸던 금병아리
꿈도 채 못 깬채 족제비입에 물렸다네

때마침 돌아온 엄마닭
멍멍이를 불러왔기에망정이지
우리네 금병아리 교훈도 못 찾을번 했네

《그것 봐라》하고 엄마닭 따끔히 하는 말
《제 재간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한초도 경각성을 늦춰서는 안되느니라
　원쑤는 그 한초를 노려 백년을 엿본단다
　아가 이젠 알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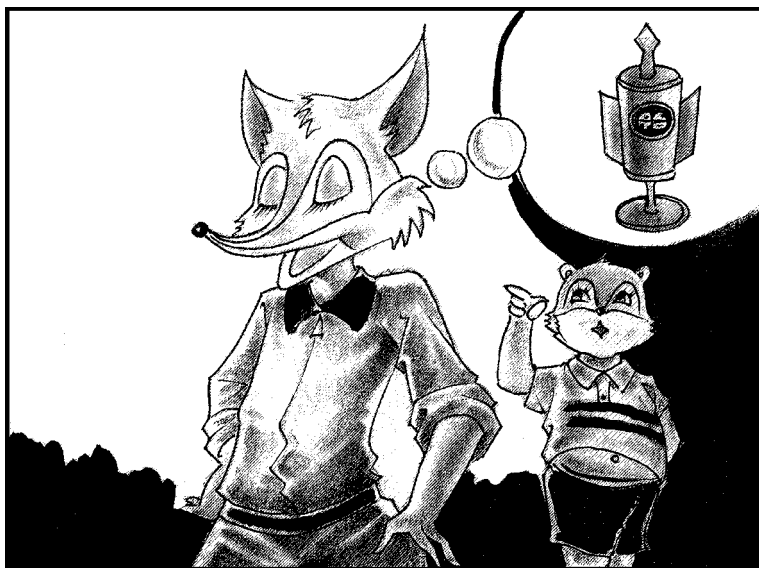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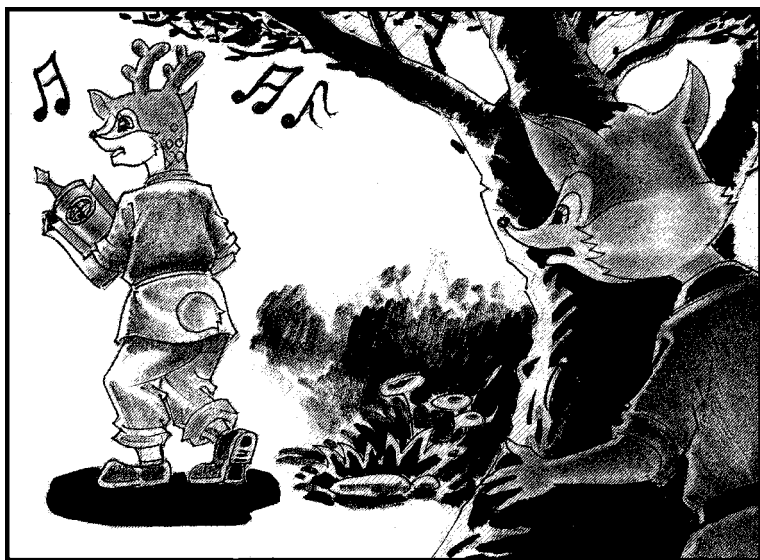
그림 리송철

체육경기에 참가하러온 여우는 주석단에 놓인 금컵을 보자 대뜸 마음이 짜르르했습니다.

(저걸 가져다 팔면 굉장한 돈을 벌게야.)

여우는 어떻게 하면 금컵을 제 손에 넣을가 하고 궁리하다가 옆에 있는 너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저 금컵은 무슨 경기에 상으로 주는가요?》

《왜, 마음에 드시우? 달리기에서 1등만 하구려. 그러면 저 금컵이 차례질테니…》

너구리의 말에 여우는 웃동을 벗어던지고 달리기경기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에서 1등은 여우가 아니라 사슴이 하였습니다.
《에이, 분해라.》
금컵을 안은 사슴을 할겨보던 여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금컵을 제 손에 넣고야말리라 이발을 바드득 갈았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금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슴을 남모르게 살금살금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라가며 골을 짜내야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쩐다… 한 고개만 넘으면 사슴네 집인데…)
이마털만 빡빡 쥐뜯으며 따라가던 여우는 손등이 선뜩한감에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선 갑자기 먹장구름이 밀려오며 번개가 일고 우뢰가 치는것이였습니다.

순간 여우는 제 이마를 탁 쳤습니다.

(그렇지! 하늘이 날 돕는구나.)

여우는 사슴이 걸음을 다그쳐 고개길에 올라섰을 때 다급히 뛰여가며 소리쳤습니다.

《사슴아저씨! 금컵을 버리세요. 쇠붙이를 쥐고있으면 번개에 맞을수 있어요!》

여우의 새된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정말 시퍼런 번개가 하늘중천에 쭈-욱 가로지르며 뒤따라 짜르릉! 하고 우뢰까지 쳤습니다.

《어이쿠!》

사슴은 엉겁결에 금컵을 놓고 얼마쯤 떨어진 바위뒤에 가 엎드렸습니다.

때를 기다렸던 여우는 바람처럼 달려가 금컵을 제 덧저고리에 싸안고 왔습니다.

《해해… 겁쟁이같은게, 천으로 싸안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모르는 모양이지.》

여우는 이렇게 종알거리며 미리 봐두었던 느티나무 구새통으로 기여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가 벼락을 맞을줄이야…

《쨩!》하고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서 제일 큰 느티나무우듬지로 시퍼런 불줄기가 뻗어내렸습니다. 순간 여우는 숯검뎅이가 되고말았습니다.

비가 멎은 후 사슴은 허리가 부러져나간 느티나무 구새통속에 머리를 디밀어보고는 혀를 연방 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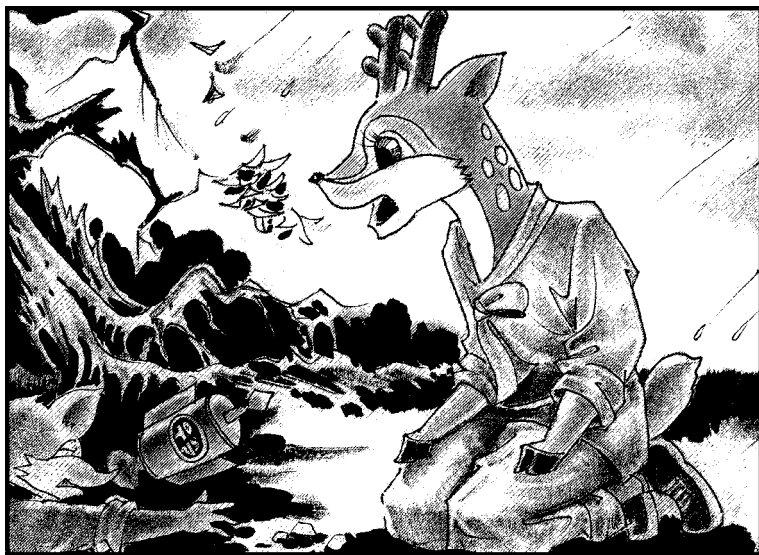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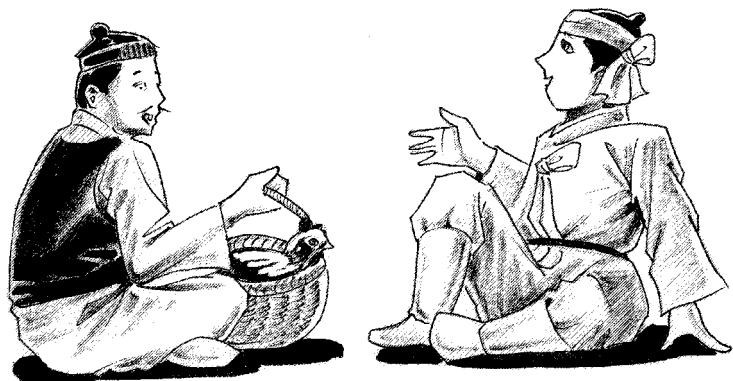
《허참, 대단한 박식가인줄 알았더니 고작 제 죽을 곳도 못 가려보는 좀도적이였군.》

명이 긴 닭과 짧은 닭

그림 리송철

옛날 어느 마을에 제 리속을 위해서라면 이웃간의 체면도 가리지 않는 김서방이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김서방한테 이웃에 사는 박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오래간만에 점심이나 함께 하세나.》

박서방은 살찐 깜장암닭을 꺼내놓았습니다.

(이크, 묵직하구나.)

암닭을 받아든 김서방은 불쑥 제 욕심 차릴 생각부터 하였습니다.

(이 큰 암닭과 우리 집 작은 암닭을 슬쩍 바꿔야지. 털 뽑히우고 가마속에서 익혀내온 다음에야 제 닭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재간이 있을라구.)

김서방은 박서방이 가져온 큰 깜장암닭을 제 집 닭장에

넣고 대신 중닭이 됨직한 작은 암닭을 꺼냈습니다.
저 혼자 부엌에서 닭의 목을 비틀어 털을 뽑고 가마속에서 쪄낸 김서방은 태연스레 박서방을 찾았습니다.
《자, 통닭이 들어갑니다. 어서 나앉게.》
《아니?!》
김서방의 청에 상앞에 다가앉던 박서방은 별스럽게 작아진 닭을 보고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순간 김서방은 속이 찔렸지만 모르는척 물었습니다.
《왜 그러나?》
《내 분명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암닭을 가져온것 같은데 아무리 가마속에 들어갔다 나온들 이렇게 함싹 졸아들수가 있나?》
박서방이 머리를 기웃거리자 김서방은 제편에서 《아니, 그럼 내가 자네 닭을 가지고 무슨 요술이라도 부렸단 말인가?》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글쎄 그런건 아닐테지만…》
박서방은 김서방과 콩이야팥이야 하기가 싫었던지 닭고기 몇점을 먹는둥마는둥하더니 이내 가버렸습니다.

(히히… 앉은자리에서 우리 중닭이 큰 깜장닭으로 변했구나.)

김서방은 너무 좋아 손벽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이를 주느라 마당에 풀어놓았던 닭들중에서 박서방이 가져온 큰 깜장암닭이 보이지 않았던것입니다.

《이런, 제길…》

속이 달아난 김서방은 부엌과 마당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큰 깜장암닭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울바자에 펑 뚫린 개구멍만 보일뿐이였습니다.

(아이쿠! 고놈의 암닭이 저 구멍으로 빠져 제 집을 찾아간게로구나.)

김서방은 슬며시 박서방네 집 울타리를 넘겨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다를가 그 큰 깜장암닭이 박서방네 마당에서 다른 닭들과 함께 모이를 쫓고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아… 아… 저 깜장암닭이?…》

김서방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떠듬거렸습니다.
《여보게 김서방, 갑자기 왜 그러나?》
모이를 뿌려주던 박서방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닐세.》
김서방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듯 눈만 끔벅거리다가 《참, 이제 보니 임자네 닭들은 명이 길게 생겼네그려.》하는것이였습니다.
《아, 그런가? 하긴 자네네 닭들은 명이 짧은것 같애. 언제 큰 닭으로 되여볼새도 없이 중닭만 되면 가마속으로 들어가야 할테니까.》
박서방의 의미심장한 말에 김서방은 그만 낯이 벌개져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어느 동산의 착한 짐승들이 양지쪽에 새집들을 짓고 이사를 갔습니다.

《얘, 다람아! 넌 이사를 안 오니?》

먼저 이사를 하고 새 마을 한가운데 꽃밭을 만들던 토끼랑 방울염소랑 멍멍이가 다람이에게 묻는 소리였습니다.

《응, 이제 인츰 이사오겠어. 아직 짐들을 쌀 바줄을 마련 못해 그래.》

하지만 다람이는 그래서 이사오지 못하는게 아니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꽃밭을 다 꾸려놓은 다음에 갈테야. 이제 가면 꽃밭을 꾸리느라 땀이나 흘릴걸.)

다람이는 속으로 어서 남들이 마을꽃밭을 다 꾸려놓기만 바랐습니다.

어느날 꽃밭을 다 꾸렸나 해서 빈 몸으로 달랑달랑 새 마을로 갔던 다람이는 눈이 올롱해졌습니다.

글쎄 꽃밭은 다 꾸렸는데 또 마을의 곳곳에 놀이터를 꾸리는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넌 아직 이사를 안 오니?》

다람이의 속궁냥을 모르는 이웃들이 다람이일을 걱정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람이는 아닌보살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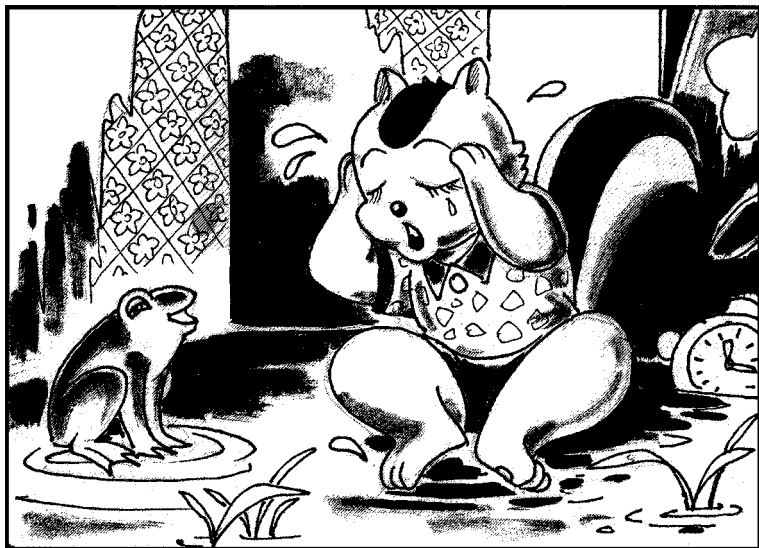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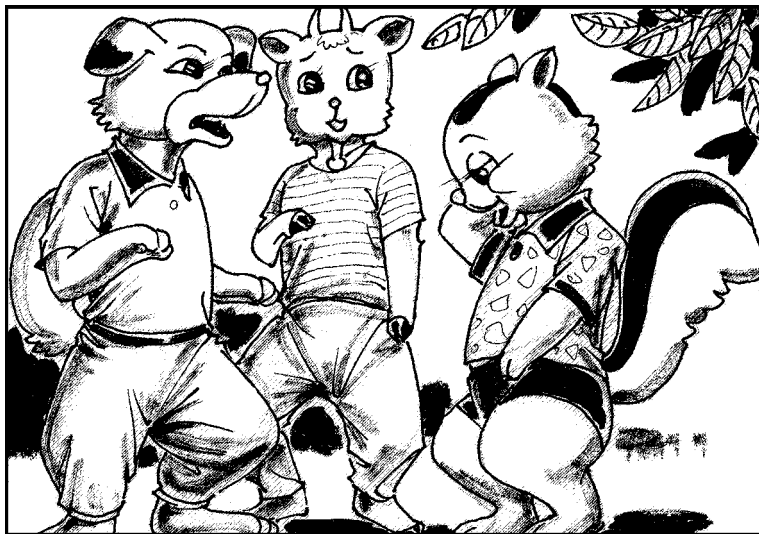
《바줄은 다 구했는데 짐을 싣고올 수레가 고장나서 그래.》

《그럼 우리 수레를 쓰렴.》

《우리가 제꺽 실어오자.》

이웃들이 모두 팔을 걷고나서자 다람이는 바빠 소리쳤습니다.

《아, 내 일은 걱정말고 어서 놀이터나 꾸려. 난 원래 내 짐을 아무 손에나 맡기지 않어.》

그 말에 이웃들은 다람이를 섭섭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서야 다람이는 새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새집의 문을 열어본 다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그동안 창문을 밀고들어온 비풍에 알뜰하게 꾸려놓았던 방안이 수라장이 되였던것입니다.
꽃무늬벽지는 다 떨어지고 방바닥엔 물이 차 개구리들의 물놀이장이 되고…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람…》
다람이가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머리를 싸쥐는데 이웃들인 토끼랑 방울염소, 멍멍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몹시 놀라와했습니다.
《이런… 우린 곁에서도 이렇게 된줄은 모르고있었구나.》
《이웃이라는게 정말 면목이 없다. 자주 들여다봐줘야 하는건데…》
《우릴 용서해줘. 그동안 마을꾸리기에만 바삐 돌아치다보니 정말 안됐다.》

다정한 이웃들의 말에 다람이는 그만 마음이 찌르르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나한테 차례진 벌이야. 난 사실 마을이 너희들의 손에 다 꾸려진 다음에 이사와 편안히 살려고 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어. 흑흑… 난 새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

다람이의 말에 이웃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다람이의 솔직한 뉘우침에 모두 기뻐했습니다.

《됐어. 아무리 큰 결함이래도 제스스로 깨달으면 고치는 법이야! 앞으로는 마을 일이자 곧 제집 일이라는걸 명심하고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꽃동산으로 꾸리자.》

이웃들의 타이름에 다람이는 고개를 끄덕이였습니다.

꼬마개구리의 《저녁산보》

그림 천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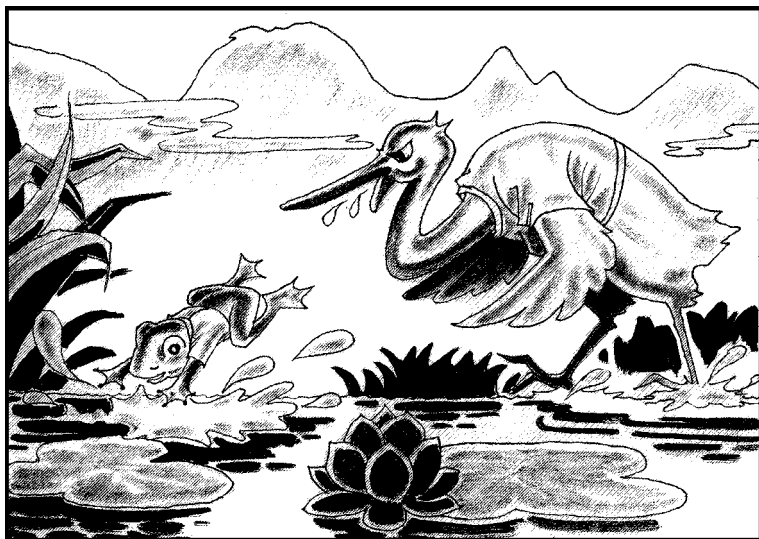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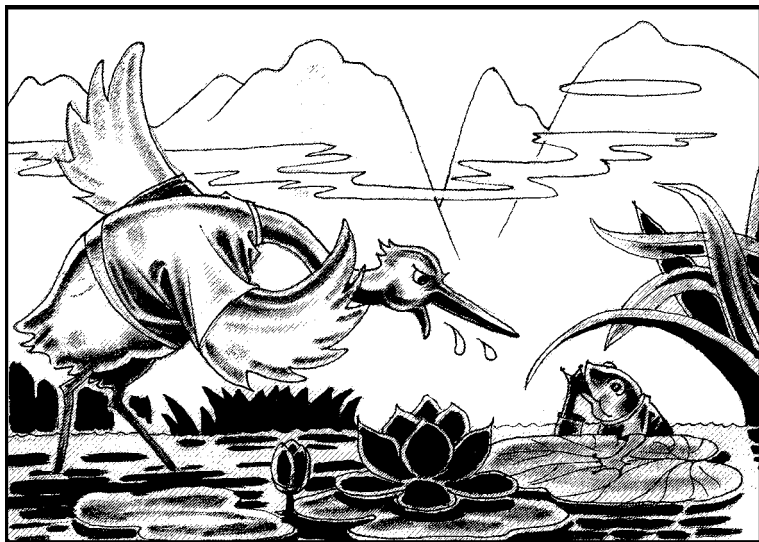
어느 늪가에서 있은 일입니다.

방금 올챙이로부터 꼬리를 마무리고 개구리가 된 꼬마가 땅우에 뛰여올랐습니다.

이때 황새 한마리가 꼬마개구리를 보자 좋은 먹이감이 생겼다고 껑충껑충 뛰여왔습니다.

미심쩍은 생각이 든 꼬마개구리는 황급히 물속으로 뛰여들었습니다.

닭쫓던 개신세가 된 황새는 물속만 멍청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것 참, 꽤 맛있겠는걸, 뼈도 만문하고. …)

황새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어떻게 하면 꼬마개구리를 홀려낼수 있을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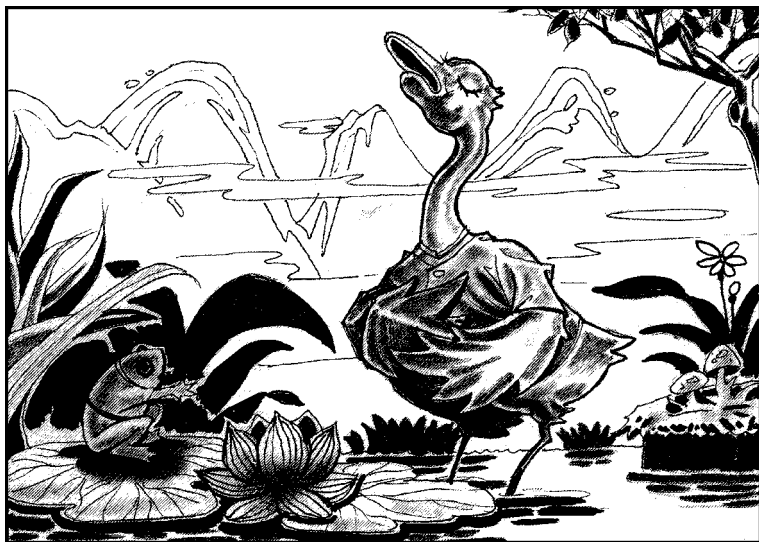
그러다가 무슨 좋은 수를 궁리해낸듯 늪가운데서 머리를 내민 꼬마개구리에게 점잖게 말을 건넸습니다.

《얘, 뛰긴 왜 뛰는거냐? 난 너하고 저녁산보를 함께 하고싶어서 오댔다. 이렇게 좋은 저녁에 물속에만 들어가있다니…》

그러나 꼬마개구리는 두눈만 껌벅이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새는 그러는 꼬마개구리를 보자 애써 마음을 눅잦히며 계속 지껄였습니다.

《하긴 너희 개구리들이 저녁산보의 진미를 알수가 없지, 그저 먹고 자고 울고. … 그런 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니? 이런 황홀한 저녁에 늪가를 오가며 자연을 감상하는것 이상 좋은게 없단다. 너는 령리하게 생긴걸 보아 이런것쯤은 알수 있을것 같은데…》

황새의 이 말이 끝내 꼬마개구리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꼬마개구리는 입을 조심스럽게 벌리더니 황새에게 물었습니다.
《저, 저녁이나 하고 산보를 하려고 하는지요?》
《저녁?!》
꼬마개구리의 엉뚱한 물음에 황새는 잠시 얼떠름해졌습니다.
그러나 인츰 꼬마개구리의 묻는 속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음, 정말 령리한 놈인걸.)
황새는 고픈 배를 한껏 불궈보이며 긴 목으로 트림까지 했습니다.
《아, 저녁을 먹다마다. 난 방금 물닭네 생일잔치에 가서 배가 터질 지경으로 먹었단다. 배가 고파서야 산보가 다 뭐겠니…》

이 말에 꼬마개구리는 마음을 놓고 물속에서 헤여 나왔습니다. 트림까지 하는 황새가 자기같은것은 잡아먹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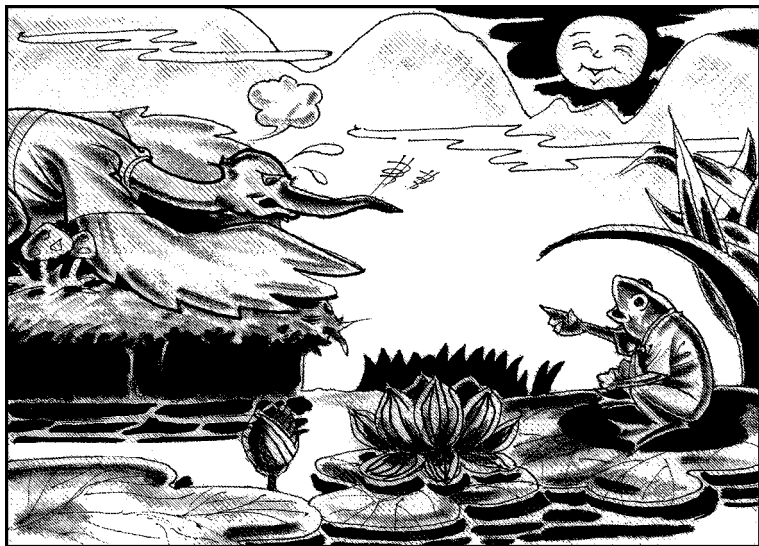
(이제 내가 황새와 저녁산보를 한 다음 그 감상을 형님들에게 이야기해줘야지.)

꼬마개구리는 황새와 저녁산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꼬마개구리는 모둠발로 훌쩍훌쩍 옮기고 황새는 긴 다리로 껑충껑충 걷는통에 서로 걸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꼬마개구리가 몇발자국 앞서 걸음을 옮겼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딱!—》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쿠!》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꼬마개구리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방금 밟았던 돌멩이를 힘껏 쪼은 황새가 부리를 싸쥐고 맴돌아치는것이였습니다.

사실은 뒤에서 꼬마개구리를 겨냥하고 힘껏 부리로 쪼은것이 냉큼 뜀박질로 옮기는 바람에 황새는 돌멩이를 쪼았던것입니다.

《개골개골… 이놈아!》

그제야 황새의 속심을 알아차린 꼬마개구리는 얼른 물속으로 다시 뛰여들어가 격분해 소리쳤습니다.

《그래, 물닭네 생일잔치에 가서 배불리 먹고왔다던 놈이 돌멩이까지 먹으려고 해? 식충이같은 놈…》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개구리들은 황새가 청하는 《산보》에 절대로 응하지 않았답니다.

그림 정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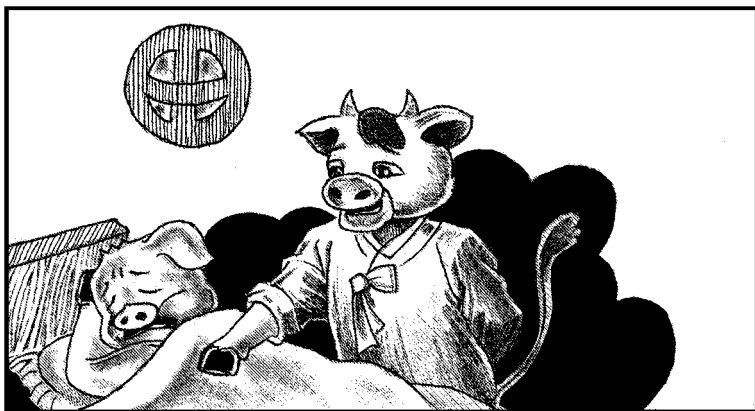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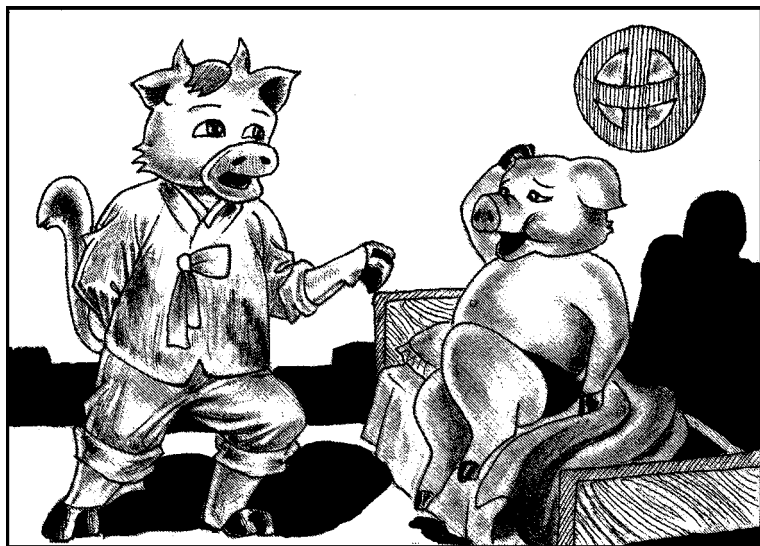
어느 마을에 늘 툴툴대며 불평부리기를 좋아하는 꿀꿀돼지가 살고있었습니다.

부지깽이도 뛴다는 봄날에도 꿀꿀이는 계속 늦잠만 잤습니다.

《여보게, 어서 일하러 나가세, 수닭이 운지 언제라고…》

누렁소가 찾아와 꿀꿀이를 흔들어깨웠습니다.

(챠, 이거 시끄럽겐 그러는데…)

꿀꿀이는 두엄무지를 밭으로 내갈 일이 끔찍하여 계속 잠자리에서 꿈찌럭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못해 일어나며 이렇게 툴툴댔습니다.

《아니, 그놈의 닭녀석은 모기소리만큼 소릴 내고도 제 할일을 다했다고 하루종일 노는가? 내참…》

《자네 무슨 소릴 그렇게 하나? 수닭의 목소리는 앞산너머 곰서방도 깨운다는데 모기소리만 하다니…》

누렁소가 혀를 차자 꿀꿀이는 이렇게 둘러치였습니다.

《형님도 참… 내 귀청이 남보다 두텁다는걸 모르나요?》

누렁소는 입이 쓰거워 더 말을 안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누렁소한테서 사연을 들은 수닭이 꿀꿀이네 집 마당에서 울어댔습니다.

《꼬끼요!》

그러자 꿀꿀이네 집 문이 벌컥 열리며 주둥이가 한발 나온 꿀꿀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끼, 이녀석! 심장병이 있는 나를 죽일 작정이냐?》

《그럼 어쩌랍니까? 귀청이 두터워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찾아오니 이젠 심장이 놀란데…》

수닭도 화가 나 마주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게 네 목청은 틀렸단 말이야. 내 목소리처럼 웅글면서 거세야지.》

《그럼 래일 아침부턴 아저씨가 기상나팔을 불구려.》

수닭의 이 말에 꿀꿀이는 기다렸던듯 제꺽 응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그럼 너 내대신 거름더미 날라라.》

꿀꿀이는 수닭이 돌아가자 너무 좋아 춤까지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에라, 이젠 땀을 흘리지 않게 됐는걸.)

이튿날 아침 꿀꿀이는 눈을 뜨자마자 꿱— 꿱— 소래기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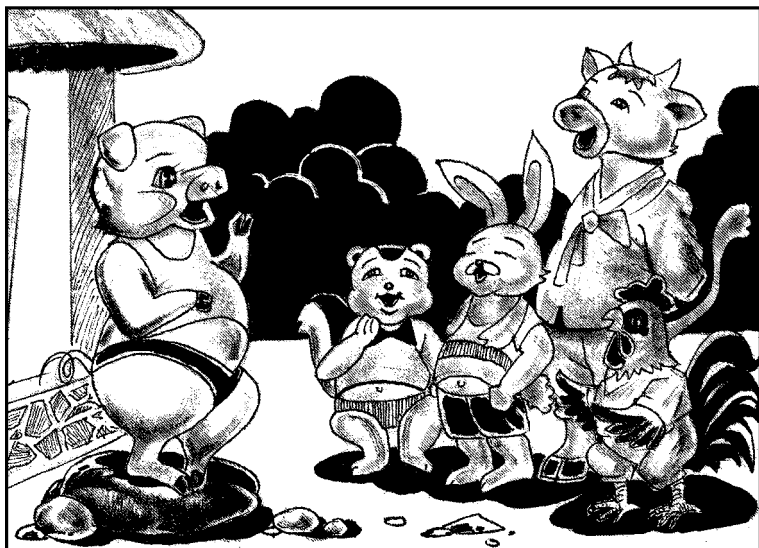
동산의 짐승들은 꿀꿀이네 집에 무슨 변이 났는가 해서 모두 달려왔습니다.

《자, 어서 일들을 나가시우. 오늘부턴 내가 기상나팔을 불게 됩니다.》

《뭐? 자네가?》

꿀꿀이의 말에 모여왔던 짐승들이 배를 그러쥐고 웃었습니다.

《아니, 왜들 웃어대는거요? 당장 숨넘어가는듯 한 수닭의 목소리보다 까무라쳤던 짐승들도 정신이 펄쩍 들게 하는 내 목소리가 나으면 낫지요.》

그 말에 짐승들은 더 죽어라 웃어댔습니다.

《하하… 그럼 지금 기상나팔을 불었단 말인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허허… 기상나팔이 아니라 휴식나팔이겠지.》

그제야 꿀꿀이는 오이씨같은 눈을 치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해가 중천에 떠서 꿀꿀이를 어처구니없이 내려다보며 웃는것이였습니다.

《여보게, 꿀꿀이.》

누렁소가 숨만 씩씩 쉬는 꿀꿀이에게 타일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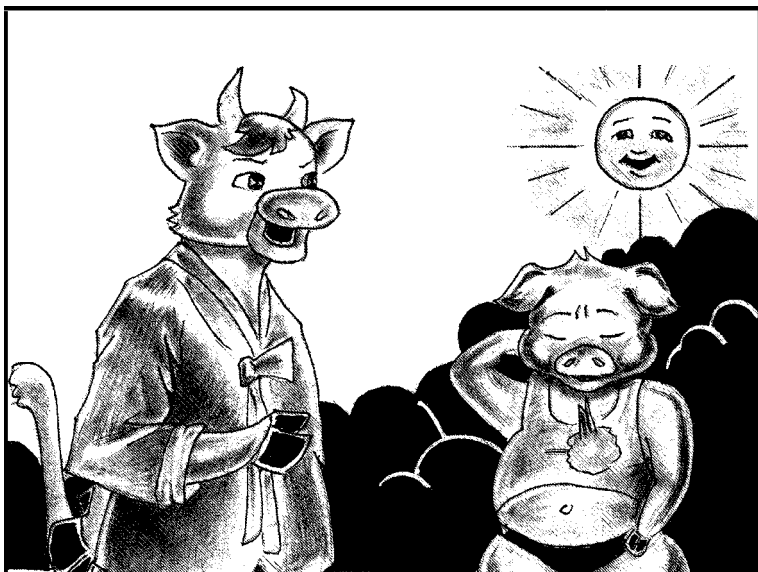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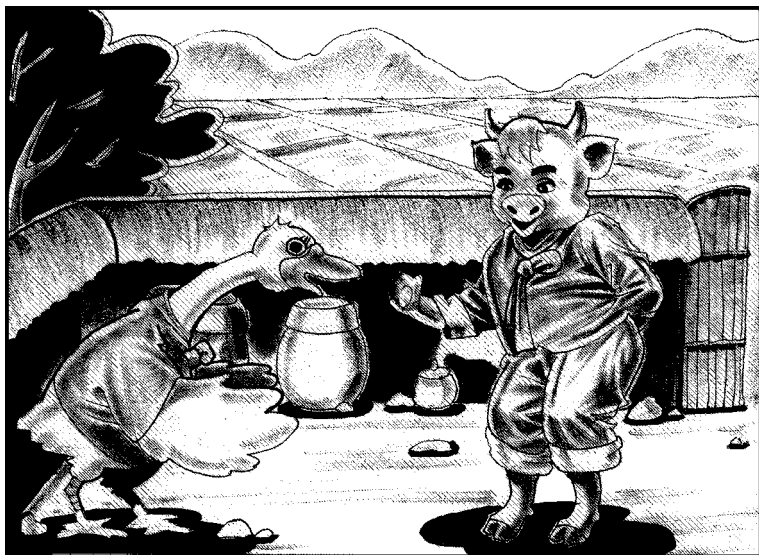
《모든 일은 재간도 재간이지만 우선 성실하여야 해. 자네같이 힘든 일은 싫어하고 게을러서야 남의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나?》

오해했던 게사니

그림 천은석

어느 벌마을에서 있은 일입니다. 마을의 좌상인 황소는 장마가 지기 전에 앞내가의 뚝을 보강하려고 다른 짐승들과 함께 일을 나가면서 게사니에게 말했습니다.

《멍멍이가 나들이 가서 없어 그러니 마을경비를 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릴 소리쳐 부르라구. 모두 달려올테니.》

《알겠어요.》

게사니는 저 혼자 뒤짐을 지고 뒤뚝거리며 마을을 돌고 돌았습니다.

(헹, 목청이 거센 덕에 오늘은 팔자를 고쳤는걸.)

게사니는 누가 자기의 장한 모습을 보아주었으면 하고 은근히 바라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게사니의 그 마음을 알기나 한듯 까마귀 한마리가 날아오더니 수작을 거는것이였습니다.

《아이구, 이거 게사니아주버니시군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이라도 반갑지 않네. 어서 제 갈길이나 가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무들을 소리쳐 부를테니…》

게사니가 이렇게 을러대자 까마귀는 마른침만 꿀깍 삼키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이건 너무하웨다. 난 그래도 게사니아주버니가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는것 같아 동정의 말이래도 해주고 가려고 내렸더니…》

《내가 따돌림을 받다니?!》

게사니는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란듯 까마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까마귀는 마치 제가 당한 일이기나 한것처럼 한숨까지 쉬며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오늘 저 뚝쌓기라는것이 핑게좋은 들놀이라우. 내 이자 오면서 보니까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펴놓고 먹으면서 꽥 꽥 소리지르는 아주버니가 없으니 소란스럽지 않다고 모두들 좋아합디다.》

《뭐? 뭐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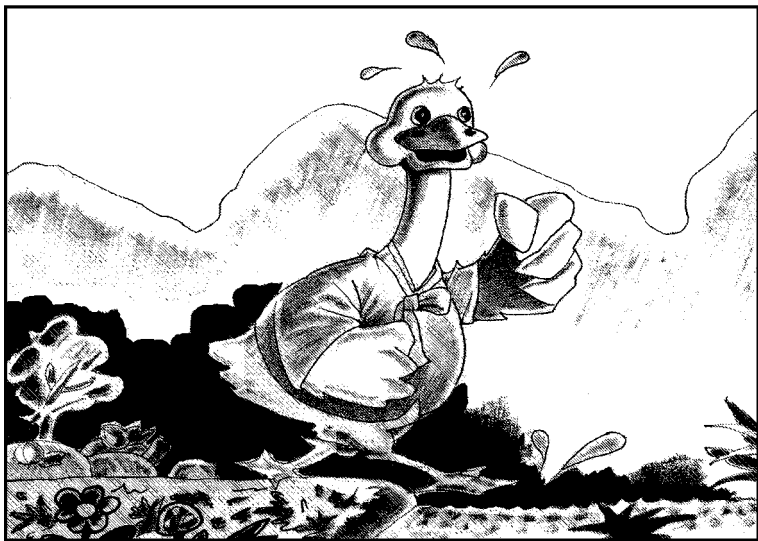
까마귀의 말에 게사니는 그만 피가 꺼꾸로 솟는듯했습니다.

(정말 나 혼자 빼돌리고 논단 말인가?)

게사니의 변한 낯색을 훔쳐보고난 까마귀는 《에라, 그럼 난 가겠수다.》하며 뒤산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게사니는 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텅빈 마을을 뒤에 두고 앞내가로 나갔습니다.

(까마귀말이 사실이라면 황소아저씨와 해볼테야.)

《아니,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소리쳐부르라구 했는데…》

뜻밖에 나타난 게사니를 보고 황소는 못내 놀라와했습니다.

그들은 들놀이는커녕 모두 흙짐들을 지고 뛰여다니느라 땀에 젖어있었습니다.

순간 게사니는 자기가 어리석게도 까마귀한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까마귀가 여기서 들놀이를 한다기에…》

게사니가 넙적한 부리를 민망스레 놀리는데 마을쪽을 바라보던 황소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까마귀들이 우리 마을에 날아든다. 자, 빨리 마을로…》

《뭐?!》

마을짐승들은 모두 허둥지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게사니도 뚱기적뚱기적 뒤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일 늦게야 마을에 들어선 게사니는 자기를 지켜보는 모두의 눈길들앞에 그만 입이 얼어붙고말았습니다.

《저… 어떻게 됐나요?》

게사니는 겨우 풀이 죽은 목소리로 황소한테 물었습니다.

《보초가 그걸 우리한테 묻나? 마침 나들이갔던 멍멍이가 때맞춰 돌아왔기에망정이지 까마귀놈들한테 온 마을이 털리울번 했네.》

《멍멍이가요?!》

게사니는 까마귀들을 쫓아버리고 돌아오는 멍멍이를 부끄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멍멍이는 게사니한테 다가와 다정스레 말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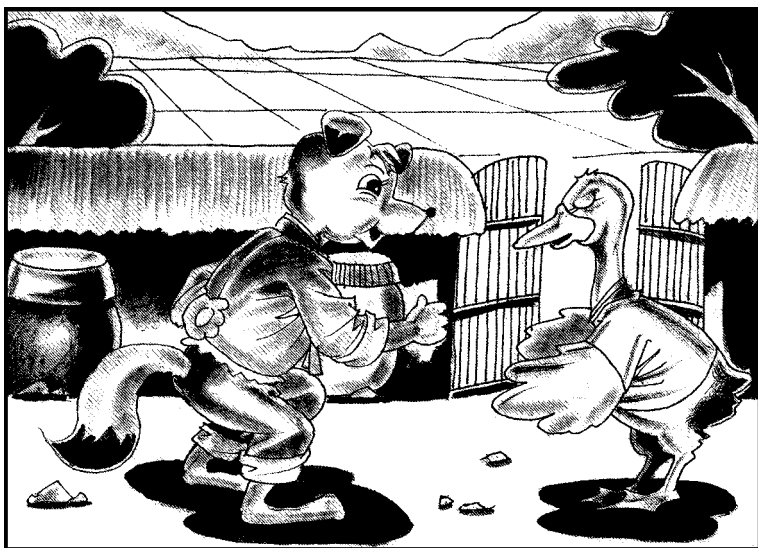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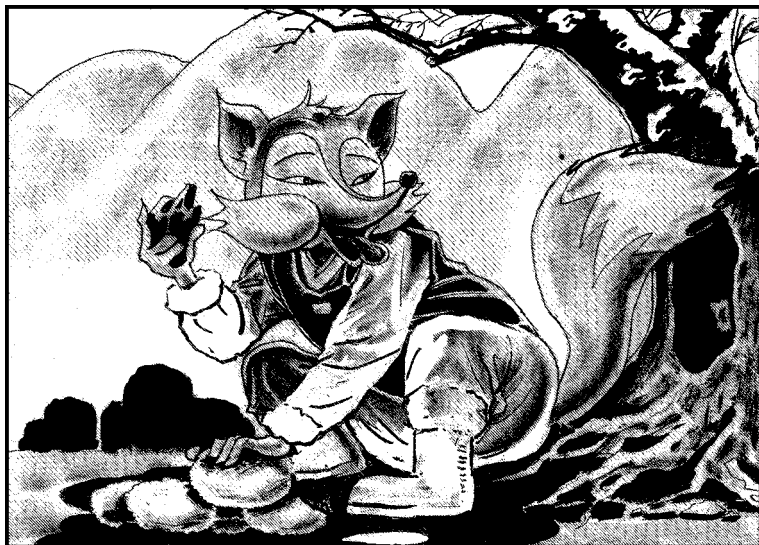
《보초란 마을의 제일 큰 믿음을 안고 자기의 가장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는 일이라는걸 명심하게. 다시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여우가 빚어준 눈덩이

그림 천은석

여우가 눈판을 싸다니다 어느 산등성이에서 두 꼬마곰이 서로 재미나게 눈싸움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저놈들을 그저…)
여우는 당장 달려가 두놈 다 목을 비틀어 주린배를 채우고싶었지만 어쨌든 상대가 곰이라 덤벼들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다?)
나무뒤에 숨어서 노란 눈알만 뱅글뱅글 돌리고있던 여우는 《옳지!》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눈덩이속에 돌을 넣어 빚으면…)
여우는 신통한 수라도 발견한듯 그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기까지 했습니다.

눈속을 파헤친 여우는 얼어붙은 돌멩이들을 깽깽거리며 까내여 그 돌멩이를 넣고 눈덩이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두놈 다 정통맞고 뒈져라.》

이렇게 혼자소리로 씨벌인 여우는 빚어놓은 눈덩이를 한아름 안고 산등성이로 올라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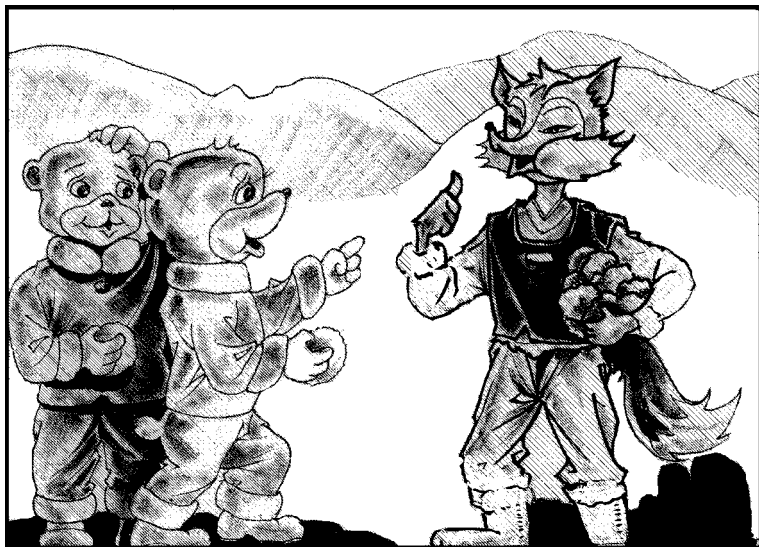
《얘, 꼬마곰들아, 재미있게 노는구나.》

여우의 아양에 두 꼬마곰은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넌 누구니?》

아직 여우를 본적 없는 꼬마곰들이 물었습니다.

《나? 난 여우라고 해. 동산의 체육경기 심판원이지. 그래 누가 이기니?》

여우의 물음에 두 꼬마곰들은 서로 제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아아, 이러지 말고 내가 심판을 서줄테니 다시 겨뤄봐라.》

여우는 정말 심판이나 된듯 두 꼬마곰을 갈라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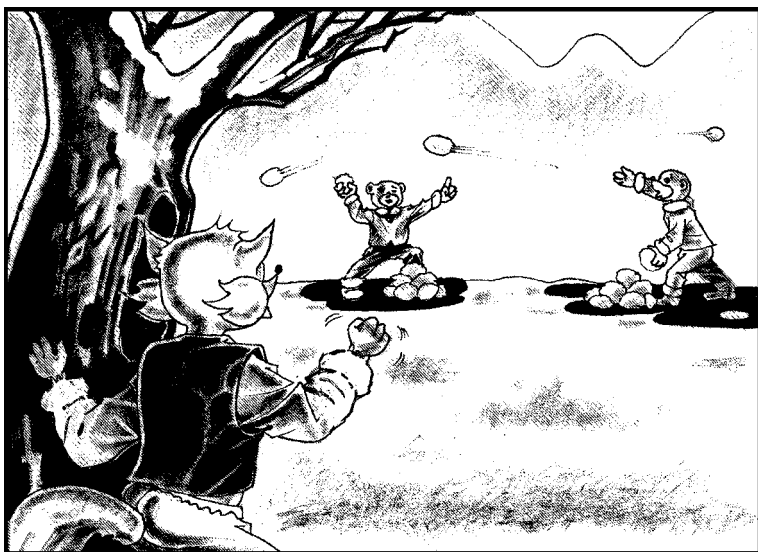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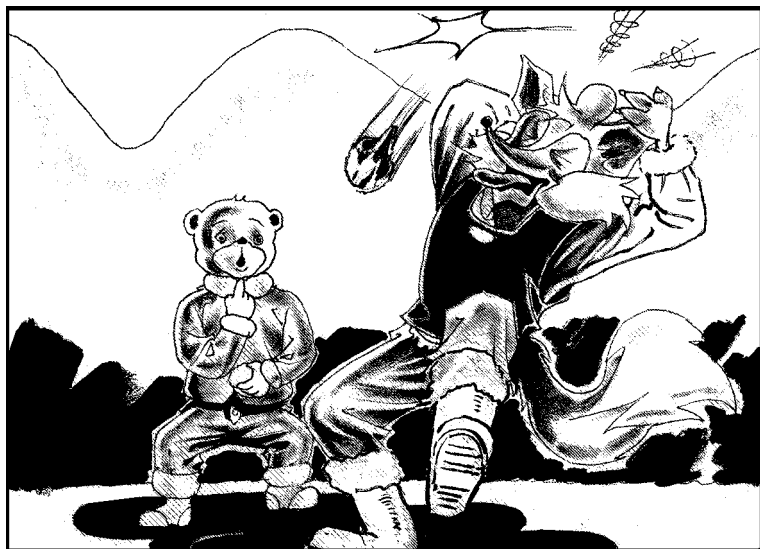
그리고는 제가 빚은 눈덩이를 꼭같이 나누어주며 절대로 다른 눈덩이를 던져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한 꼬마곰이 물었습니다.

《그건 똑같은 개수의 눈덩이로 누가 더 명중률이 높은가 알기 위해서이지.》

드디여 눈싸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윙— 윙— 퍽! 탁! 눈덩이들은 맹렬히 오고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꼬마곰들이라 헛팔매질만 했습니다.

《야 참, 그렇게 망탕 던지지 말고…》

너무 속이 단 여우는 참지 못하고 한 꼬마곰의 곁으로 뛰여가 던지는 묘리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쪽 꼬마곰이 던진 눈덩이가 뜻밖에도 여우의 이마빡에 날아와 맞았습니다.

딱!— 깽!

여우는 허양 그 자리에 뻗었습니다.

《엉?! 이게 어떻게 된거야? 눈덩이에 맞아 쓰러지다니?…》

두 꼬마곰은 당황해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쥐고있던 눈덩이를 부스러뜨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속에서 삐죽한 돌멩이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놈이!》

그제야 두 꼬마곰은 여우놈의 속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옛다, 이 교활한 놈! 마저 콱 맞아라.》

두 꼬마곰은 쥐고있던 눈덩이를 모두 여우놈의 대갈통에 들이박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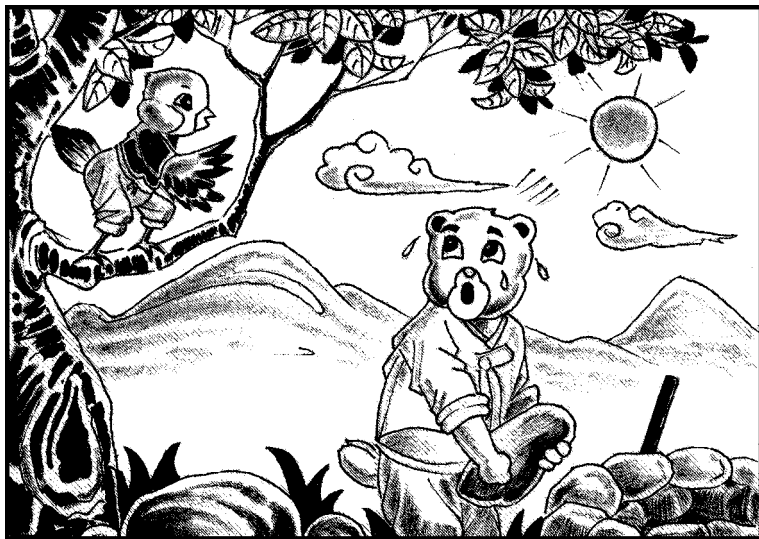
《하마트면 큰일날번 했어.》

《그러게 말이야.》

두 꼬마곰은 다시는 이런 놈들의 잔꾀에 속지 말자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림 박길성

무슨 일에나 분수없이
간참하기 좋아하는 참새가
한번은 곰서방이 우물 파는데 나타나
메밀눈을 뛰룩거리며 짹짹대기를

《곰아저씨! 무슨 우물을 이렇게 넓게 파요?
다람쥐나 청서네 드레박은 도토리깍지만 한데
그렇게 넓게 팔 필요가 있어요?
참 힘도 장사네》

그러나 곰서방 그런 충고는 들을념 안하고
계속 수걱수걱 땀흘려 일하자
무안해진 참새
이번엔 더 소리높여 참녜하였네

《아니?! 우물이 너무 깊군요
너구리랑 오소리네 드레박줄은 세기장밖에 안되는데
이 우물은 열기장도 넘겠군요》
그래도 곰서방 들을념을 안하자
참새 포르릉 날아올라
온 동산에 날아다니며
곰서방을 나무랐네

《정말 곰아저씬 너무도 몰라
글쎄 무슨 우물을
그렇게 넓고 깊게 판담…》

그러자 이웃들 참새에게 물었네
《그래 우물에 물이 나오던가?》
《아니, 물은 아직 나올념을 안하더군》

참새의 대답에 이웃들 모두 으하하!
《아니 우물이야 넓게 파든 깊게 파든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거지
　어디 정해진 법이 있는가?》

혼자 아는체 하며 《충고》하던노릇이
오히려 제 무식함을 폭로한 참새
그제야 낯이 뜨거워 부리를 다물었네
허나 이것은 그때뿐
오늘도 참새는 재재거리며 간참하길 좋아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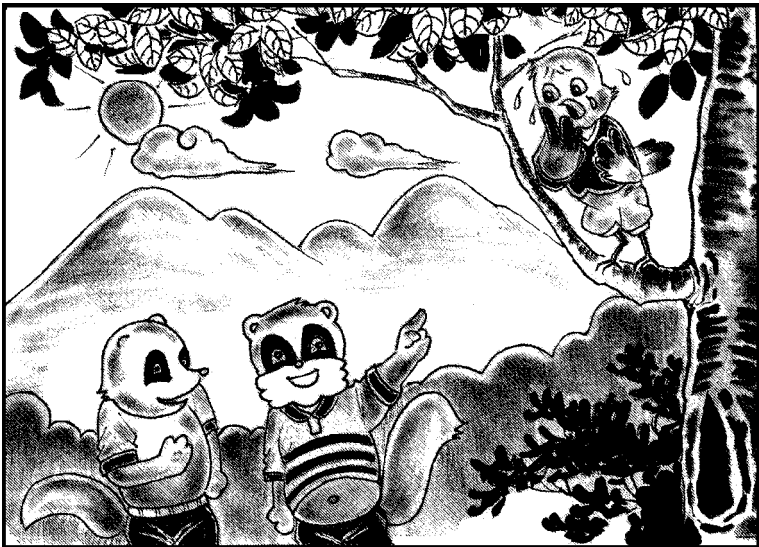



그림 정광일

추운 겨울날이였습니다.

먹을것을 훔치려고 족제비가 어느 한 집에 기여들었습니다.

홰대우에 올라가 살찐 암닭을 물고 내려오던 족제비는 그만 대문밖에서 멍멍이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크!)

바빠난 족제비는 갈팡질팡하다가 닭을 안은채 마당우에 디굴디굴 굴었습니다.

마침 마당우에 내린 눈은 진눈이여서 족제비의 몸뚱아리에 척척 달라붙었습니다.

어느새 마당가운데는 큼직한 눈덩이가 생겨났습니다.

이때 대문을 열고 들어선 멍멍이는 난데없이 생겨난 눈덩이를 보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발끝으로 툭— 차보았습니다.

그러자 눈 한귀퉁이가 떨어지며 족제비낯짝이 드러났습니다.

《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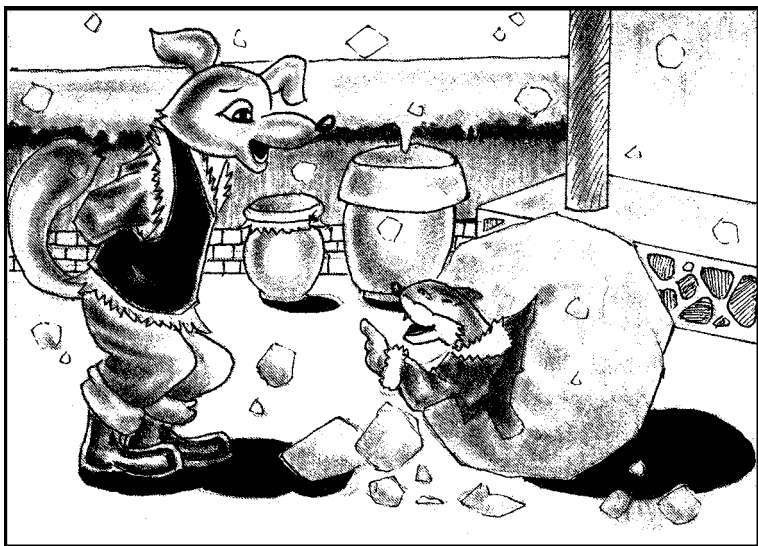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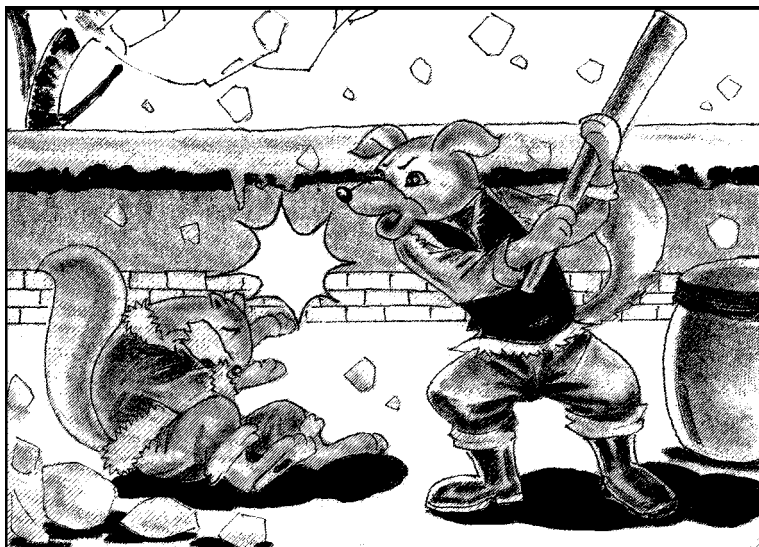
멍멍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족제비는 제편에서 먼저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짓이요? 남의 집을 허물다니… 난 당신을 당장 재판에 걸겠소!》

어찌나 뻔뻔스레 소리쳤던지 그만 눈덩이까지 울리여 쩍— 빠그러졌습니다.

그러자 그속에서 암닭이 푸드득! 하고 날개를 치며 나왔습니다.

《이놈이!…》

멍멍이는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허나 족제비는 더 눈알이 꼿꼿해 대들었습니다.

《흥! 이것 보시오. 당신네는 온통 무리한들이요. 저 암닭도 실은 내 집 구경을 하자며 들어오더니 이젠 아주 허물어버리고 달아나는군요. 재판소에서는 저 암닭도 가만두지 않을거요!》

멍멍이는 몽둥이를 쳐들며 소리쳤습니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단 말은 거짓이였구나! 하긴 강도치고 철면피하지 않은 놈 어디 있을고?》

족제비는 숨이 지면서도 고함쳤습니다.

《누구 없소? 살려주오, 강도요!—》

그림 천은석

어느 마을에 제 주견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기 잘하는
리서방이 살았네

어느날 멋진 단지가 하나 생긴 리서방
마실온 최서방에게 물었네
《이 단지를 어디에 썼으면 좋겠나?》

최서방 단지를 보고 하는 말
《그참 멋진 단지일세그려
내 생각엔 꿀단지로 썼으면
좋겠군》

최서방의 말에 리서방 무릎쳤네
《꿀단지? 좋아!
  내 이 단지에 꿀을 채워넣을게
  자네 자주 찾아와 꿀맛을 보게》

최서방한테 장담한 리서방
다음날 오서방이 찾아오자
또 단지를 내보이며 묻기를—
《자네 생각엔 어떻나? 이 단지를
  어디에 쓰면 좋겠나?
  최서방은 꿀단지로 쓰라고 하지만…》
《꿀단지?》
이렇게 되물은 오서방
고개를 저으며 하는 소리
《내 생각엔 깨단지로 쓰면 좋겠네》

오서방의 말도 그럴듯해
리서방 또 무릎쳤네
《그참 좋은 생각일세
내 이 단지에 참깨를 채워넣을테니
참깨보숭이를 쓸 일이 있으면
아무때나 찾아오라구》

오서방을 바래주고난 리서방
어떻게 하면 참깨를 구할가
궁냥하는데
이번엔 장서방 찾아왔네

《여보게 장서방!
자네 보기엔 이 단지를 어디에 쓰면
좋겠나
최서방은 꿀단지로 쓰라 하고
오서방은 깨단지로 쓰라 하지만…》

단지를 내보이는 리서방한테
장서방 한참이나 단지를 살펴보고나서
신중한 낯색 지으며 하는 말
《이런 단지야 젓갈단지로 쓰는게
  제격이지》
《젓갈단지라구?
  그참 그럴듯한 생각일세
  내 이 단지에 맛좋은 젓갈반찬을
  가득 채워넣을테니
  자네 와서 실컷 맛보게》
장서방의 말에 이번에도 리서방
쌍무릎쳤네

하지만 리서방 어느것 하나
바로 정하지 못하고
날과 달만 흘러보내던 어느날

우연히도 리서방네 집에
최서방과 오서방 그리고 장서방이
함께 모였네

그들은 리서방의 단지를 보고
저마다 제가 아는듯—
《저 단지는 꿀단지일세
  여보게 리서방! 어서 꿀맛을 좀 보세나》
《아니야 꿀단지일게 뭔가? 깨단지일세》
《잘들두 안다
  저 단지는 젓갈단지야
  안 그런가? 리서방!》

바빠맞은 리서방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쩔쩔매는데
단지뚜껑을 열어본 이웃들
눈들만 휘둥글—
리서방의 단지는 여전히 빈 단지

《내 여적 저 단지를
　무슨 단지로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있는중일세
　꿀단지로 써야 할지 깨단지로 써야 할지
　또 젓갈단지로 써야 할지…》
리서방 게면적게 웃으며 뒤수더기만 긁는데

최서방 불쑥 일어나 우물가로 가더니
맹물을 길어다 단지속에 쏟아부었네
그걸 보고 리서방 깜짝 놀라 소리쳤네
《아니, 그 단지에 맹물은 왜
　채워넣나?》
리서방의 물음에 최서방 하는 대답
《자네 주견으로는 삼년석달 가도
　이 단지에 맹물조차 못 채워넣을것 같아
　내 도와주는걸세》

그 말에 오서방도 잇달아 하는 말
《허허, 꿀단지가 결국 맹물단지가 됐군
하긴 아무리 좋은 단지래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맹물단지가 되기
마련이지》

곁에서 최서방과 오서방의 말을 듣고있던
장서방도 한마디
《그러니 진짜맹물단지는
제 주견이 없어
좋은 물건도 바로 쓸줄 모르는
리서방, 임자일세그려》

어느 비오는 날이였습니다.

주인이 없는 틈에 창문을 날아넘어 방안에 뛰여든 암닭은 추녀밑에 앉아 비를 긋고있는 멍멍이에게 말했습니다.

《멍멍이아주버니, 재간이 없으니 고생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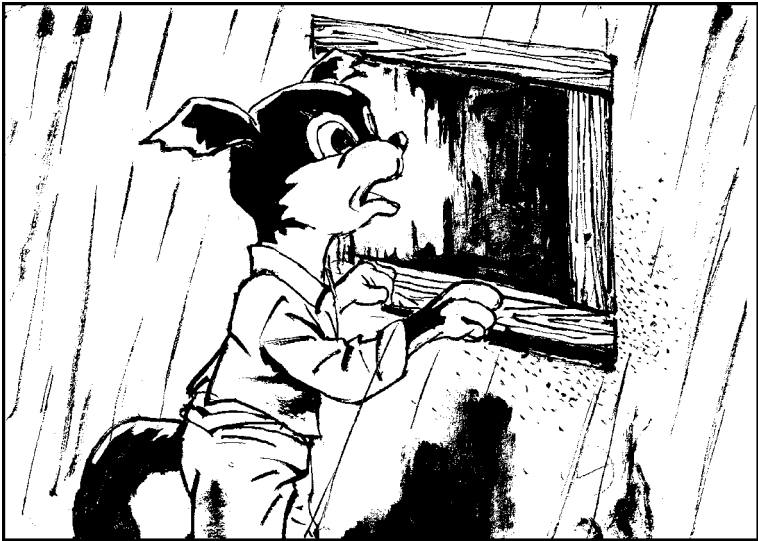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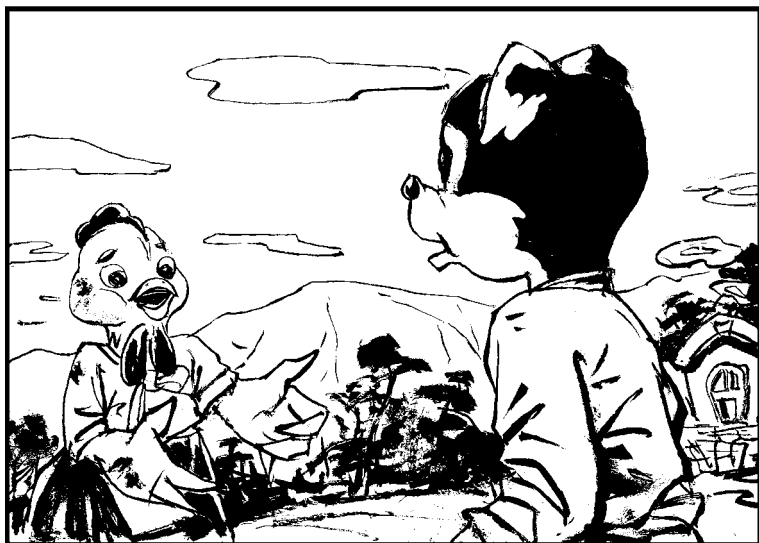
《재간이 없다니?》

《창문넘을 재간만 있다면 나처럼 방안에서 비를 긋겠는데 그것 참, 안됐군요.》

그제야 암닭의 말뜻을 알아차린 멍멍이가 어처구니없어하며 말했습니다.

《방을 어지럽히지 말구 어서 나오게.》

그러자 암닭은 홰를 치며 꼬—꼬꼭 웃어댔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뒤퇴창문으로 기여든 족제비가 호들갑을 떠는 암닭의 목을 냉큼 물었습니다.
꼬옥! 암닭은 겨우 모기소리만 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멍멍이가 방안을 들여다보니 암닭은 벌써 족제비한테 끌려 뒤퇴창문으로 사라지는것이였습니다.
《아니?! 저놈이…》
멍멍이는 얼른 뒤퇴창문을 가늠해보았습니다. 멍멍이 몸집이 빠지기는 뒤퇴창문이 빠듯했습니다.
그러자 멍멍이는 인츰 고개를 돌려 마당으로 뒤걸음질쳤다가 훸— 지붕을 날아넘었습니다.
족제비한테 물려가면서도 행여나 뒤퇴창문을 바라보던 암닭은 《이놈아!》하는 소리가 공중에서 울리는 바람에 정신을 잃고말았습니다.

한참만에 정신을 차린 암닭은 죽어너부러진 족제비옆에 멍멍이가 서있는것을 보고 영문을 몰라했습니다.

그때 나무우에 앉은 까치가 깍깍 말하였습니다.

《멍멍이아저씬 날개 없이도 지붕을 단숨에 날아넘더군요.》

《뭐?! 지붕을 날아넘었다구?… 창문도 넘지 못하던 멍멍이아주버니가?…》

암닭은 까치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멍멍이는 쓴입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꼬꼬댁아주머니! 난 창문을 넘지 못하는게 아니라 안 넘어갔다오.》

그림 권영훈

칠면조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제일먼저 달려온 이웃집 수닭이 제 날개가 타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꺼주었습니다.

《이 신세를 무엇으로 갚겠나. 죽어도 절대로 잊지 못할거네.》

칠면조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수닭은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 어련히 돕지 않을라구.》

《아닐세,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가장 어려운 때 본심을 알게 된다고 우리 이 우정을 귀중히 간직해가자구.》

《그러세나.》

칠면조의 말에 수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수닭네 집에 족제비가 기여들었습니다.

꼬꼬댁― 꼬꼬댁―

수닭과 족제비가 싸우는 소리가 칠면조네 집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런, 야단났군.)

수닭네 집으로 달려가려고 문고리를 벗기던 칠면조는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만, 족제비는 여간 사나운 놈이 아닌데… 달려갔다가 나까지 화를 입지 않을가?)

칠면조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에서라두 소리칠가? 수닭네 집에 족제비가 기여들었다고… 아니야. 그랬다간 족제비가 후에라도 우리 집에 쳐들어올수 있어, 복수하려구.)

이렇게 생각한 칠면조는 수닭한테 언제 우정을 떠들었던가싶게 심장이 싸늘해졌습니다.

(에라, 난 족제비가 수닭네 집에 기여든것을 보지도 못하고 싸우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면 그만이지.)

문이란 문은 모두 빗장을 지르고난 칠면조는 아래목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웠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가. …

칠면조네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쿠, 족제비가 우리 집에도…)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고 몸이 와들와들 떨려난 칠면조는 밖에 대고 떠뜸떠뜸 소리쳤습니다.

《여… 여기엔 수… 수닭이 없소. 그리구 난 수닭과 아…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몸이요.》

그러자 대문밖에서 《뭐, 뭐? 수닭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몸이라구?》하는 목소리에 이어 이런 말이 간간이 울려왔습니다.

《여보게, 칠면조! 자넨 겉색갈만 잘 변하는가 했더니 속마음도 잘 변하는구나. 나… 난 그래도 네가 족제비한테 화를 당하지 않았나 해서 찾아왔댔는데…》

그 말을 들은 칠면조는 화닥닥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족제비와 싸우느라 피투성이가 된 수닭이 족제비를 쫒아버리고 제 몸도 돌볼새없이 자기를 찾아온 장한 모습이 두눈에 확 안겨왔습니다.

(아, 저런 수닭한테 내 무슨 말을…)

칠면조는 자신이 끝없이 혐오스럽고 저주로왔습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수닭한테 떠벌인 〈우정〉이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변덕쟁이 〈우정〉이였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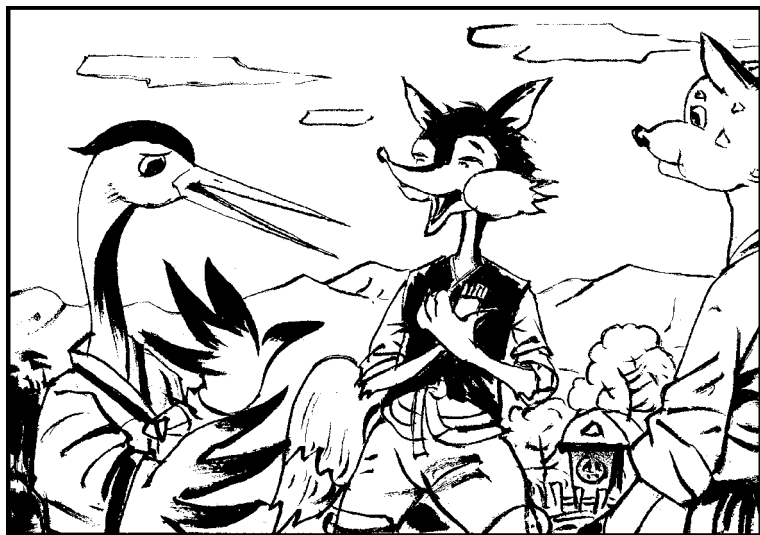
칠면조는 수닭을 마주보기가 민망스러워 이튿날 이사짐을 싸가지고 슬그머니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두루미가 받은 《생일기념품》

그림 권영훈

생일을 맞은 두루미가 맵시있는 옷을 차려입고 동산의 짐승들을 자기 집에 청했습니다.

두루미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이웃들은 저저마다 기념품을 안고왔습니다.

《두루미야, 이것은 우리 동산의 향옥돌인데 이걸 몸에 지니면 기분도 좋아지고 옷에 좀도 쓸지 않아.》

노루가 내미는 동그스름한 흰돌을 내려다보던 두루미는 《아유! 냄새야.》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청하지도 않은 여우가 나타나 코를 싸쥐고 캥캥거렸습니다.

《?!》

두루미와 이웃들의 눈총을 받은 여우는 손을 내리우고 뾰족한 주둥이를 나불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늘 고급향수만 맡다보니 이런 냄새에 습관이 되질 않아서…》

그러며 여우는 품속에서 금빛마개를 씌운 파란 색갈의 조그마한 병을 꺼내보였습니다.

《이 향수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사향쥐꼬리로 만든 고급향수이지요. 사실 전 이걸 두루미부인에게 생일기념으로 드리려 했는데… 저 노루가 향옥돌이라는걸 먼저 주니…》

여우가 할끔할끔 노루를 쳐다보며 말하자 두루미는 조금 망설이다가 《그럼 둘다 받지요.》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아니. … 그럼 이 향수의 가치가 떨어지지요.》

여우가 향수병을 도로 품속에 넣으려 하자 두루미는 여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내 이 향수병만 받겠어요.》

그리고나서 두루미는 노루에게 받은셈치고 량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에익!)

노루는 당장에 여우놈을 혼쌀내고 두루미더러 제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말하고싶었지만 그날이 두루미의 생일이여서 묵묵히 돌아서고말았습니다.

(래일은 꼭 말해줘야겠어.)

이튿날 노루는 단단히 벼르고 두루미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두루미는 구멍투성이가 된 생일옷을 놓고 통곡하고있는것이였습니다.

《아이고! 내 옷이야! 누가 내 생일옷을 이렇게 만들었담… 누가?》

두루미가 내흔드는 생일옷을 들여다본 노루는 곁에 마개가 열려진채로 있는 《사향쥐꼬리》표향수병을 보고 대뜸 모든것을 짐작했습니다.

《두루미야, 이 구멍들은 누가 우정 뚫러준것이 아니라 여우가 준 향수를 쳤기때문이다.》

《뭐?!》

두루미는 노루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봐라. 이 향수에는 천을 녹이는 독물만 아니라 살에 닿으면 살까지 썩게 하는 독물이 있어.》

노루가 향수병을 기울여 실지로 증명해보이자 두루미는 몸을 오싹 옹송그렸습니다.

《아니, 그럼 여우놈이?》

두루미는 더 참을수없어 그길로 여우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흥, 죽어 썩어지면 찾아가 먹어주지 않으리. 이렇게 찾아오기까지야…》

두루미가 혼자 오는줄 알고 맞받아나오던 여우는 뒤따라 들어오는 노루 등을 보자 눈이 똥그래졌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제발 한번만…》

두손을 싹싹 비비며 애걸하는 여우놈을 내려다보던 두루미는 삐죽한 부리로 힘껏 여우놈의 숨통을 찔렀습니다.

《캥!》

여우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나가뻗었습니다.

한참만에 돌아선 두루미는 노루에게 다가서며 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란한 물건에 눈이 어둡다가는 제 목숨까지 잃을수 있다는걸 내 오늘에야 똑똑히 알았어.》

《시끄러운》 이웃

그림 권영훈

어느해 가을, 한해농사를 마무리지은 누렁소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 한해농사에 도움을 준이는 누구든 집에 초청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만… 봄을 먼저 알려준게 누구더라? 그렇지, 뻐꾹새지.》

누렁소는 먹물을 듬뿍 찍은 붓으로 뻐꾹새에게 보낼 초청장을 썼습니다.

(또 누가 있더라?…)

큰눈을 껌벅이며 생각을 더듬던 누렁소는 《꼬끼요!》 하며 이웃집 수닭이 시간을 알려주느라고 우는 소리에 와뜰 놀랐습니다.

《이크, 깜짝이야. …》

누렁소는 떠오를듯 하던 이름들이 쑥 기여들자 그만 화가 나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이거야 귀가 솔아 살겠나. 에이, 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던가 해야지. 일년내내 저 소리를 들으면서 참고 살았는데…》

그 말에 지나가던 뿔염소가 누렁소에게 다가왔습니다.

뿔염소는 턱수염을 쓸며 《임자 정말 이사를 가려나?》 하고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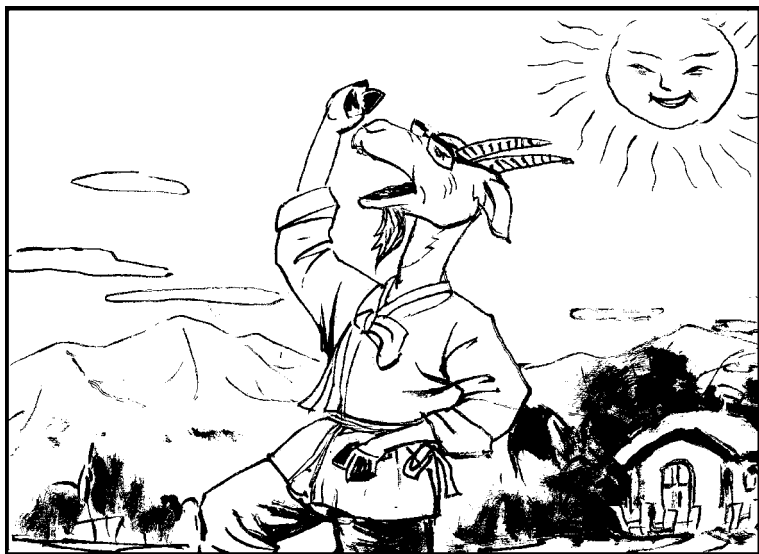
《가지 않구요, 래일이라도 당장. …》

누렁소는 결김에 큰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마침일세. 난 저 수닭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려 걱정이였는데 그럼 우리 집과 바꾸세.》

뿔염소의 말에 누렁소는 두눈이 둥그래졌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우? 난 일년열두달 저놈의 수닭목소리때문에 잠도 실컷 못 자고 늘 새벽에 일어나군 했는데… 그래, 저 시끄러운 소리가 작게 들려 걱정이란 말이우?》

《바로 그것일세. 나도 한땐 자네처럼 생각하고있었다네. 그래서 수닭의 목소리를 피해 멀리 이사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제멋대로 실컷 자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하러 나가군 했더니 가을에 걷어들인건 쭉정이밖에 없었다네. 그게 다 일 잘하라고 깨우쳐주는 권고가 없기때문이였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닭을 더욱 가까운 벗으로 삼으려고 하네.》

뿔염소의 말을 듣고난 누렁소는 어쩐지 가슴이 뜨끔해났습니다.

《그래, 언제쯤 이사짐을 싣고오라나?…》뿔염소의 물음에 누렁소는 뜻밖에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난 이사를 가지 않겠수다.》

《이건 누굴 놀리는건가? 이랬다저랬다…》뿔염소가 턱수염을 달달 떨며 발까지 쿵쿵 굴렀지만 누렁소는 안됐다는 말도 없이 방안으로 들어가 붓에 먹물을 듬뿍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초청장에 이렇게 정성들여 써나갔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잘 짓도록 나를 친절히 이끌어준 수닭동생을 우리 집에 특별히 초청합니다. 누렁소.》

그림 권영훈

어느 동산에 요행수만 바라면서 일을 게을리하는 재빛염소가 살았습니다.

재빛염소네 이웃에는 곱슬양이 살았는데 하루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재빛염소아주버니, 우리 집에서 보니 아주버니네 집 용마루가 푹 휘여든것 같은데 빨리 손을 써야 할것 같수다.》

재빛염소가 지붕우에 올라가보니 정말 용마루가 그동안 삭아서 휘여든것이 헨둥히 알렸습니다.

(어쩐다?… 에라, 이제 며칠 있지 않아서 고개너머에 사는 흰염소형님이 내 생일에 올텐데 그때 도와달래야지. 그때까지야 일없겠지.)

재빛염소는 지붕에서 내려와 생일준비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생일을 하루 앞두고 장을 보러 갔던 재빛염소는 자기 집으로 꺾어들어오는 길목인 벼랑밑 굽인돌이에 돌멩이들이 몇개 굴러떨어진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벼랑꼭대기의 바위들이 풍화되여 금시 돌사태를 일으킬것만 같았습니다.

(어쩐다?… 에라, 하루만 넘기자. 내 생일에 오는 친척들과 이웃들한테 도와달래자. 여직 일없었는데 뭘.)

집으로 돌아온 재빛염소는 방안에 무슨 글쪽지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재빛염소 보게! 오늘 밤부터 비가 오겠다는데 마을 제방뚝을 좀더 높이 쌓아야 할것 같으니 급히 앞개울로 나와주게. 멍멍이.》

(어쩐다?… 오늘 밤부턴 생일음식준비를 해야겠는데… 에라, 여직 온다온다하면서 오지 않은 비가 오늘 밤이라고 정말 올가. 날씨예보란 아주 믿을것도 못돼. 그래서 예보지. 요행수를 믿는 수밖에…)

재빛염소는 제나름대로 생각하고 제방뚝쌓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엔 정말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직끈— 뚝!

가뜩이나 삭았던 재빛염소네 용마루가 비에 젖어 그만에야 부러지고말았습니다.

《아이쿠! 매—애!》

재빛염소는 피할새도 없이 무너지는 지붕밑에 깔리고야말았습니다.

《날 살려주시오! 좀 살려주시오!》

들보에 허리를 치운 재빛염소는 소리도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웃들이 우르르 재빛염소네집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니, 자네 웬일인가?》

멍멍이가 등에 누군가를 업고들어오며 재빛염소한테 묻는 말이였습니다.

《저… 저 휘여진 용마루가 꺾어지면서…》

이웃들한테 구원된 재빛염소가 죽는 시늉을 해댔습니다.

《원참, 고개너머에 사는 자네 형님도 벼랑밑 굽인돌이에서 돌사태에 묻혀있는걸 제방뚝을 쌓으러 나갔던 우리들이 발견하고 업고들어오는 길일세.》

《뭐? 돌사태에?!》

재빛염소는 그만 입이 굳어져 뒤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만에야 재빛염소는 이웃들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를 뉘우쳤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것은 다 내가 요행수만 바라면서 무슨 일이든지 제힘으로 할 생각을 안했기때문이예요. 지붕이 무너진것도, 우리 형님이 돌사태에 묻힌것도… 차라리 내가 제방쌓기에 나갔더라면 허리라도 다치지 않았을걸…》

그 말에 곱슬양이 곰살궂게 다가서며 재빛염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마트면 아주버니 생일날에 큰일이 날번 했수다. 그것도 형님까지 꺼들어서…》

그 소리에 이웃들은 모두 웃었지만 재빛염소는 얼굴을 들수가 없었습니다.

그림 권영훈

갑자기 사납게 쏟아지는 비를 만나
여기저기 비 그을 곳 찾던
길가던 뿔사슴과 고슴도치
산기슭에 자리잡은
양아주머니네 집에 찾아들게 되였네

마침 양아주머니의 생일이라
귀빈들로 초청된
소와 말 염소가
식탁에 둘러앉은참이였네

《이거 실례합니다
　갑자기 비를 피해 들어오다나니…》
뿔사슴의 틀스러운 인사에
양아주머니 마음이 흐뭇해졌네

(정말 멋있는 뿔사슴이구나
 저 위엄있고 억센 뿔
 점잖은 말씨…)
《어서 오세요. 원 저런…
　비에 몸이 흠뻑 젖었군요
　자, 아래목으로…》

양이 뿔사슴한테
온갖 성의를 다하자
소와 말 염소도
자리를 내준다

음식을 권한다
부산을 피웠네

《양아주머닌 오늘 생일을
  특색있게 쇠게 됐수다
  이렇게 멋진 뿔사슴까지
  귀빈으로 오셨으니 말이요》

이웃들의 말에 양의 기분은 붕— 뜨고
뿔사슴도 어깨 으쓱…
그런데 이때 밖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고슴도치의 목소리

《아주머니, 양아주머니
  저도 좀 들어가면 안될가요?
  비가 계속 와서…》

문밖을 내다본 양아주머니
가시가 삐죽삐죽하고 초라한 고슴도치를 보자
대뜸 얼굴을 찡그리며 하는 말
《미안하지만 임자가 있을 자리는 없네》

그리고는 등을 돌리며 고슴도치가 들으라는듯
큰 목소리로 두덜거리길
《별 불청객이 다 찾아와
  시끄럽게 구는군
  보잘것없이 생겨가지고
  남의 생일 흥취를 다 깨면서…》

양아주머니의 문전거절에
멋적어진 고슴도치

딴곳으로 가는데
뜻밖에 양아주머니네 집에
굶주린 승냥이가 달려들줄이야…

《승냥이다! 승냥이!—》
누군가의 웨침에
점잔빼며 거들먹거리던 귀빈들
저부터 살겠다 들구뛰였네
멋진 뿔 인 사슴까지도

《아이쿠, 아이쿠 날 살려줘요!》
마루밑에 들어간 양아주머니
있는 힘껏 소리치며 구원을 청했건만
어느 귀빈도 되돌아오지 않았네

이때 딴곳으로 가던 고슴도치
양아주머니네 집에서 뛰쳐나온
체통 크고 점잖은 귀빈들
허겁지겁 달아빼는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을 알았네 바삐 되돌아섰네

다 먹어놓은 떡이라 승냥이 흡족해하며
마루밑에 들어박힌 양아주머니를
마구 물어뜯으려고 할 때
한목숨 주저없이 달려든 고슴도치
승냥이의 눈통이며 코등을 마구 찔러댔네

《아이쿠, 아이쿠!》
승냥이 갑자기 눈통이 퉁퉁 부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만에야 물러가고말았네

한참만에야
마루밑에서 나온 양아주머니
눈물을 흘리며 고슴도치한테
진심으로 사죄했네

《용서하게나.
　걸만 보고 낯가림을 한 이 미련둥이를…
　진작 자네를 집으로 맞아들였더라면
　내가 이 지경으로는 안되는건데…》

《여우놈이다!》

마을에 기여들어 병아리를 덮치려던 여우놈은 멍멍이가 소리치자 깜짝 놀라 뛰였습니다.

(아차! 들켰구나!)

부리나케 따라오는 멍멍이를 본 여우놈은 가시덩굴속으로 들어섰습니다.

(멍멍이가 감히 이런데로야…)

온통 찢기우고 할퀴우며 가시덩굴속을 빠져나가던 여우놈은 뜻밖에 약초를 캐는 염소를 만났습니다.

《저… 난 멍멍이를 우리 집에 초청했네. 자네 생각엔 멍멍이가 저 가시덩굴속을 빠져나오리라 생각하나?》

여우의 속심을 모를리 없는 염소는 능청스레 말했습니다.

《원, 초청했으면 함께 가야지 산길이 처음인 멍멍이가 어떻게 혼자 빠져나오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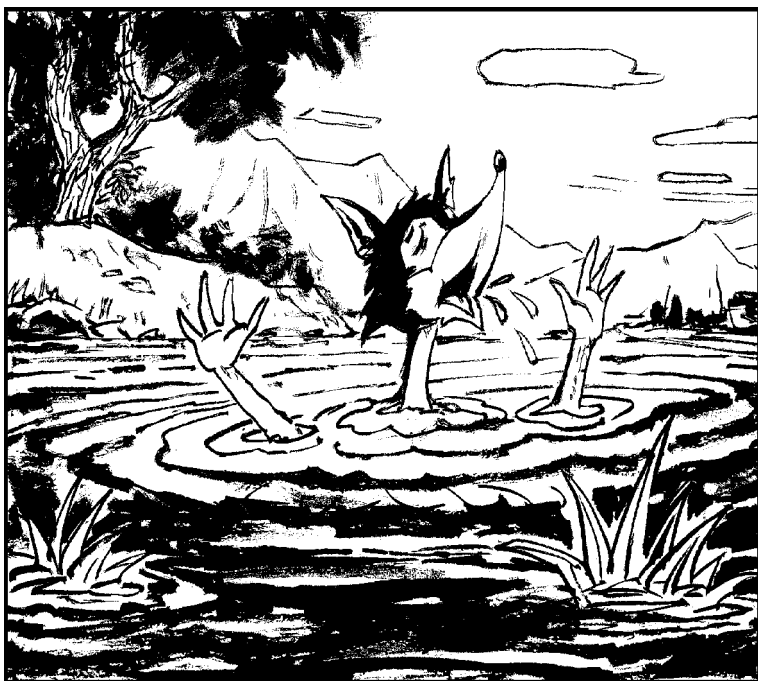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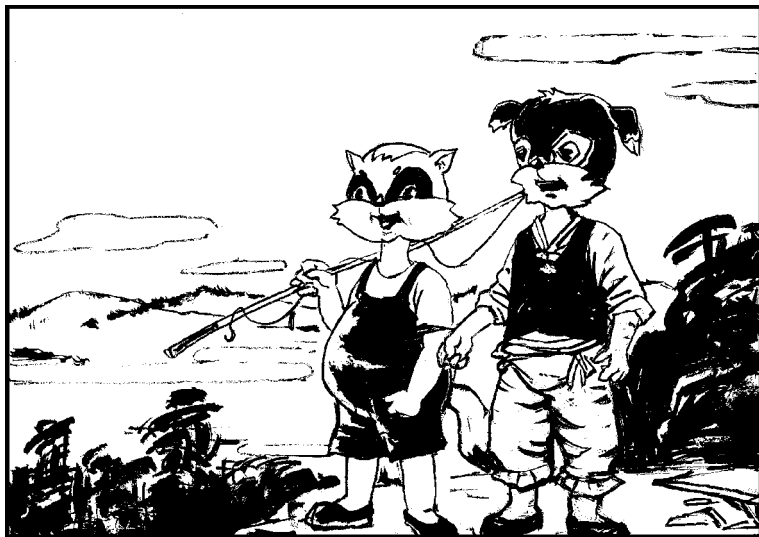
그러자 여우는 조금 숨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인차 가시덩굴속에서 와삭와삭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여우는 황급히 벼랑으로 굴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떨어지는지 허리가 부러지는지 모르게 벼랑아래로 굴러내린 여우놈은 문득 벼랑밑에서 바위이끼를 뜯는 산양을 만났습니다.

《여보게, 산양! 글쎄 멍멍이가 날더러 뛰여내리기를 하자고 하지 않나… 그래, 자네 생각엔 그 멍멍이가 이런 벼랑을 내리뛸수 있다고 생각하나?》

여우의 물음에 산양은 놀라는척 하였습니다.

《그 멍멍이에게 날개라도 있던가?》
《아… 아닐세.》
《그럼 장담하네만 내려오지 못할거네. 자네처럼 피투성이가 되여 굴러내린다면 몰라도…》
그러자 여우는 조금 숨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염소와 멍멍이가 벼랑우에서 나는듯이 달려내려왔습니다.
(이크! 이놈들이 나를 안심시켜놓고 붙잡으려구…)
남을 속이자던것이 자기가 속았음을 깨달은 여우놈은 급기야 벼랑밑으로 흐르는 강물속에 뛰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처음부터 물을 꿀깍꿀깍 먹었습니다.
이미 지칠대로 지친 여우놈에게는 헤염칠 기운마저 없었던것입니다.

이때 여울가에서 낚시질을 하던 너구리가 여우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너구리님! 좀 살려주— 사실… 은 멍멍이에게 헤염을 배워주려고 들어왔다가…》

여우놈은 물살에 떠밀려내려가며 애걸복걸하였습니다.

《허허… 참, 멍멍이가 자네에게서 헤염을 배우다니… 남의 걱정을 하지 말고 어서 제 갈길이나 가게.》

이렇게 말한 너구리는 곁에 와 선 멍멍이에게 《그렇지 않은가? 임자!》하고 물었습니다.

《암, 그렇구말구. 벌써 갔어야 할 길이지!》

멍멍이도 여우놈의 가소로운 꼴을 보고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림책

여우가 빚어준 눈덩이

글	문영철	편 집	류인호
그 림	정남혁, 리송철, 박금성, 박길성, 천은석, 정광일, 권영훈		
편 성	김남숙	교 정	김연옥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1(2012)년 1월 5일		
발 행	주체101(2012)년 1월 10일		

ㄱ—16592 값 75원

ISBN 978—9946—22—481—7